Korean Anabaptist Journal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2015 가을 통권 11호
●발행처: 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www.wkaf.net ●발행인:전남식 ●편집장: 김복기
●편집위원: 배용하 한준호 권세헌 ●발행일: 2015.10.31 ●창간일: 2012. 7. 12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520
●전화: 070-4027-2200 ●e-mail: byh1424@gmail.com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편집인의 글

의심을 통과한 믿음

배 용 하 형제
논산평화누림교회

프랑스의 평신도 신학자이자 법학자인 자끄 엘륄은 뒤틀려진 기독교와 진리를 구별하고 설명하려고 의도적으로 종교심과 믿음을 구분한다.『의심을 거친 믿음』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갈라짐이 있으며 엘륄의 여러 통찰이 아나뱁티즘의 급진적 제자도에 맞닿아 있다.

엘륄의 의하면 종교심은 인간의 질문에 답변을 주지만, 믿음은 질문을 던진다. 교리나 종교적 체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신있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피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대하지 않는가? 때로는 우림과 둠밈 혹은 제비뽑기와 같은 우연에 기대어 다시 인간에게 질문하신다. 결국 그것은 단번에 끝내주는 해결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과 태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심은 끊임없이 신을 향해 절하고 고행하고 기도하고 돈을 바치면서 말한다. 쉬지 않고 말하다가 죽는 수다쟁이의 모습이다. 종교심을 가진 이는 오래전 그의 신이 말한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신이해를 넓힌다. 그러다가 그 신이해가 신의 본디 속성보다 복잡해지고 방대해지면서 신이 말했던 것은 종교인들이 만든 논리와 이해틀 속에 박제된다. 이제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말만을 신에게 끊임없이 해댄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이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충만하게 들릴 때까지 ….

엘륄의 이러한 관점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 인간과 함께 하는 행동으로 규

정되는 분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처럼 혼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설명할때 영원하다는 말이나 전능하다는 말을 인간은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음을 깨닫고 입을 다무는 편이 낫다. 그러나 인간은 학습과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와 체제가 한정하는 신에 대한 종교심이 필요할 뿐이다. 이미 신이 요구하는 순종은 부수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종교심은 추종자들을 희생시킨다. 아니 희생을 강요한다. 그것이 시간이건 돈이건 생명이건 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리라면 누구도 희생시키지 말고 단지 자신을 희생하라고 한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제자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게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듣는 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덜 완고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는 "내 멍애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예수의 말을 어디까지 믿는 것일까? 엘륄은 묻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일까? 사람들이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빈소리를 하실 만큼 한가하신 분인가?

아나뱁티스트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투쟁해야 한다. 성서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 그 시대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답은 각자의 몫이며 행동으로 드러날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세상이 구별할 것이다. 엘륄은 하나님께 직면하여 투쟁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의심을 말한다.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리화한 명백한 종교심의 얼굴이다.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믿음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군대의 전략이 약하다고 갑옷만 겹겹히 입힌들 그들이 강해지는가? 약함이 강함이라는 고백을 노래로 기도로 설교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진정 바울의 고백이 선교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엄살이었는

가? 바울은 그가 자랑할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약함이 강함인 것이지, 약하기 때문에 전투에 나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이 차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워진 하나님에 대해서도 통일되고 선명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축소한다. 당연히 이러한 종교심에 호소하는 교리나 종교는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회사에서 의심하는 싹수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살육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을 어기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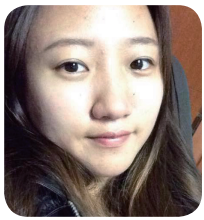
믿음은 의심을 허락한다. 끊임없이 인간 삶에 개입하여 질문하고 양심을 두드리는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과 한 가지 답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과 일하시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다. 이론도 아니다. 믿음이 일상에서 개인의 삶에서 실재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세상에서 드러날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과 무관하다는 말로 인간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말들은 위선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주홍글씨인가, 그저 안전망을 제공하는 울트라 캡 쉴드용 아이템인가? 아나뱁티스트에게는 종교가 주는 방패도 없으며 종교심이 주는 그늘도 없어보인다.

중세의 아나뱁티스트들은 모든 것을 의심했다. 교육, 신학, 전통 그리고 세속적인 영향 모두가 의심의 대상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무지를 아주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아나뱁티스트들은 지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로 위장한 거짓을 훨씬 더 염려했다.『아나뱁티스트 성서해석학』 의심하지 않으면 종교심은 어느덧 편안함과 안전이라는 덫으로 신자들을 묶어둘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거짓과 위선은 어느덧 턱밑까지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은 1세대 아나뱁티스트들이 걱정하는 많은 것을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그리고 평화로 굳히는 첫 단추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기고글

내 인생의 한 조각, 펜실베니아 알렌타운



김솔거 자매
2014-15 IVEP

IVEP 지원하게 된 이유

2년전 대학선교단체 IVF 산돌대학에서 KOPI 이재영 원장님을 통해 메노나이트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답답함과 또 다른 방식의 삶을 향한 갈망의 상태에 있던 저는 메노나이트라는 새로운 길을 만나 굉장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길 선택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그들의 일상이 궁금했고, 또한 공동체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책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꽃잎 자매와 함께 갈 수 있어서 가서 힘들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케이스 매니저에서부터 친구로(Lutheran Refugee Services)

제가 일했던 알렌타운 Lutheran Refugee Services에서는 미얀마, 이라크, 시리아, 등 아랍 언어권에서 오는 난민들을 환영하고 정착 초기단계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 중 제가 맡은 일은 난민이 처음 도착했을 때 총 6회로 이뤄진 미국 문화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신참인데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회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이 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고

꽃잎이와 펜실베니아로 출발!

내가 사는 지역에 많이 있는 미얀마 커린 부족의 공동체 모임이다.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1년에 한번씩 모임을 크게 한다.

내가 속한 미 동부해안 IVEP 모임

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얀마에서 온 난민가정에 방문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7년 동안 말레이시아 난민캠프에서 지내며 이방인으로서 모진 대우를 받아 온 숱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감당하며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더 놀랐던 것은 그들이 저보다 몇 살 더 어린 친구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니 그 전에는 단지 클라이언트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어 공통점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였을 때 그들이 겪는 안정감은 훨씬 커짐을 보면서 섬김이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동부해안 IVEP

IVEP를 다녀온 친구들이라면 미국동부 IVEP가 얼마나 잘 모이고 교제하는지에 알 수 있을 만큼 저희 코디네이터 Kim은 저희를 위해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IVEP를 가기 전에는 내가 이 친구들과 얼마나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놀고 하면서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됩니다. 언어와 문화, 성격, 나라, 다름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이 친구들을

한 두 달에 한번씩 만나는 미 동부해안 IVEP다. 언어, 국적을 뛰어넘는 우정을 알게 해준 귀한 친구들

미 동부해안 IVEP 모임으로 Virginia에 있는 기도후원자를 만나고, Relief Sale에 참여를 했다

통해 믿음의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습성에서 온전한 신뢰란 무엇인지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

IVEP 기간 중 또 다른 감사한 점은 나와 하나님의 은밀한 이야기가 가득해지는 시간들입니다. 한국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던 반면 미국에서의 삶은 라이딩, 음식, 교제 등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로 돌아간 것 같은 무력한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나누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 나를 돌보고 계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튼튼한 자양분이 될 것이기에 또한 너무 감사한 경험입니다.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North or South?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에서 왔다고 하면 한결같은 반응은, 한국과 북한을 라이벌 관계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닌데, 가족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분단상황에 얼마나 마음 아

MWC 준비 컨퍼런스에서 만난 Jim 목사님.
조중접경지역 여행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셨다

파하는지,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가족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고립시키고 압박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고…. 나의 작은 목소리가 북한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Mennonite World Conference를 준비하기 위해 랭캐스터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 때 같은 테이블에 앉은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돌학교에서 다녀온 조중접경지역 여행경험을 얘기해드렸더니 무척 흥미롭게 들으시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제가 먼 나라 미국까지 와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동이었습니다.

Mennonite World Conference

6년 주기로 대륙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MWC와 Global Youth Summit이 이번에 마침 펜실베니아에서 열려서 IVEP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교단을 넘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전세계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지지로 다가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 한가지는…. 한국에서 터지는 이슈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고 낙심해왔는데 여기서 만난 독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온 많은 친구들이 제주도 강정의 이야기, 밀양 이야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불인정 등의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같이 분노하고 아파하고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내 좁은 시야에서는 한국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더 큰 뜻과 계획이 항상

있으심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내면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던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삶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작은 것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삶을 풍성하게 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쓰지 않을 수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삶으로 배운 평화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로서 얻어진 교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흘러가는 평화의 성령 안에서 삶을 경험하고 교제를 하고 식탁을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흘러들어온 그 평화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Global Youth Summit에서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과 아침 찬양을 인도했다

대전꿈이있는교회

그간 꿈이있는교회 이야기를 보내지 않아 궁금하셨지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교회 분립

첫번째이자 가장 큰 사건은, 꿈이있는교회가 분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 9년 9개월간 동역했던 김홍철 목사님 부부와 두 가정이 '사

랑하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만간 가정이 더 참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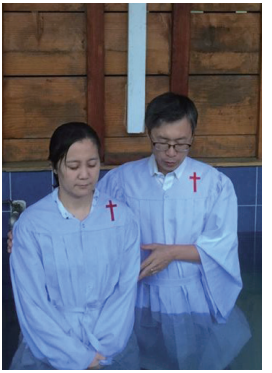
분립을 결정하고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자는 목소리도 들려왔지만, 대다수는 분립을 원했습니다. 동시에 꿈이있는교회도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교회 정회원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대전 외곽에 땅을 사서 몇 가정이라도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주일에 전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현지역에 도서관과 카페, 어린이와 청소년 전문서점을 세우고, 주일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학교 등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것 등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실버제주여행

두번째 소식은 제주도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취지는 평소 여행을 다니기 힘든 분들 모시고 제주도 구경 시켜드리는 것이었고, 모두 7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성우 형제님께서 별채를 오픈해 주셔서 저와 할아버지 한 분이 3박을 그곳에서 묵었고, 자매님들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습니다. 3박4일이었지만 실제로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김성우 형제님

부부의 도움으로 나이드신 분들에게 최적화된 장소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침례식



세 번째 소식은 침례식입니다. 올 들어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였고, 장애인 친구들의 침례 등을 고민하다가 더 늦기 전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고생하고 계신 할머니 한 분, 제주도에 같이 다녀온 86세 할아버지, 자폐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혜정이, 그리고 올해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한 차혜경 자매와 그 분의 딸 솔희(자폐)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역독거노인을 위한 일일 찻집 계획

11월에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일일 찻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리: 전남식 형제〉

예수마음교회

김성빈 형제님 가족 AMBS로 유학

작년 10월부터 오랜 고민 끝에 아나뱁티스트 신학공부에 관심을 보였던 김성빈 형제님이 AMBS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40이라는 늦깎이 나이에 아들과 아내를 동반하고 아나뱁티스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의 인도함을 받아 앞으로 3년 간 미국에 머물게 됩니다. 계획이 변동될 수 있지만,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알고, 아내의 안전한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이 아나뱁티스트 교회와 공동체를 경험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언어의 어려움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5 수련회 "음악이 있는 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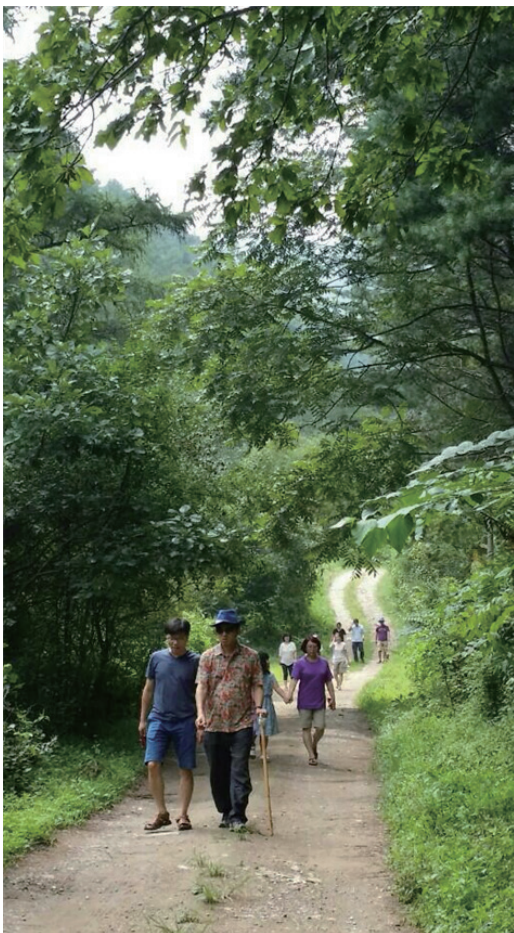
8월 21–23일까지 가평 근처의 힐링로드라는 펜션에서 열린 2015년 예수마음교회 수련회 주제는 "음악이 있는 쉼"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손뼉치며 춤추는 자연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시

간을 만들었습니다. 주제에 맞게 우리 삶 속에서 우러나는 모든 음악을 즐기고 감사하는 수련회로 함께 만든 여유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강사가 없었습니다. 참여한 사람 모두가 다 강사이며, 청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마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인생이라는 악기로 그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어린 아이이든, 어른이든, 나이와 성별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각 사람은 저마다 아름다운 악기로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요, 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동안 우리의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자 자신이 처한 곳에서 자신의 선율로 불러온 노래를 이번 여름에 하나의 독주로, 합창으로 엮어서 함께 듣고 부르고 즐겨보았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 각 사람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미리 선곡하였습니다. 선곡한 노래는 유행가도 있었고, 가스펠송도 있었고, 어렸을 적부터 불렀던 노래도 있었고, 즐겨듣는 클래식도 있었습니다. 그 노래에 얽힌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음악에 취해 노래와 인생이야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좋았다라!

(정리: 김복기)



예수촌교회

전교인 수련회 산천 무지개교회에서

예수촌 교회는 8월 22일 2박3일 일정으로 춘천 산천 무지개에서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다. 산천 무지개 교회는 춘천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전원 교회로 북카페와 교육관 숙박시설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50여명 규모가 함께 머물며 수련회를 하기 좋은 장소였다. 너른 잔디밭과 조용한 환경, 쾌적한 응접실과 편리한 부엌 등이 이곳의 장점으로 꼽힌다.

21일 저녁 개회예배로 시작된 수련회는 두 번의 특강과 캠프파이어, 게임과 합창 연습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화천 아바 공동체의 이스가랴 목사님이 초청되어 빛된 삶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지체들에게 도전을 던져 주셨다. 특강에 앞서 예수촌 교회에서 새로이 선보인 찬양인도자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다. 특이한 것은 찬양 인도자팀이 부부(최상지, 송재섭)여서 최상의 호흡을 자랑하였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교회 지체들에게 마음껏 선보인 탓이리라. 토요일 낮 시간에는 재미있는 게임과 아이들 물놀이, 오후시간에는 발성연습과 찬양 연습으로 시간을 보냈다. 오전 게임 도중 웃느라 지체들이 한동한 써

보지 못했던 복부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후 찬양 연습 전에 발성 연습 시간은 테너 홍 (홍광진) 형제의 전문가 다운 그러면서도 재치있는 지도 하에 이루어 졌는데 이 또한 재미있고도 유익한 순서였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라해도 캠프 파이어, 장작불의 은근한 조명과 온기 가운데 지체들은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캠프 파이어 잔불에 감자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 일은 또 빼 놓을 수 없는 재미와 풍미. 야식에 살찌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치명적 맛의 유혹에 넘어간 지체들도 많았다. (필자도 그중의 한사람).

이번 수련회에서 또 특이 한점은 산천 무지개 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드리면서 한완상 전 장관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다는 일. 80이 넘은 분이셨지만 아주 정정하시고 말씀을 아주 생생히 드라마처럼 잘 전해 주셨다. 그릭고 그 말씀의 깊이와 폭은 아주 깊고 넓어 예배 후에도 진한 여운으로 남았다.

전체 교인 수련회는 예수촌 교회의 전통이며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해에는 비록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해 조촐하게 치뤘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수련회가 될 것 이다. 내년에도 이런 좋은 전통이 잘 유지 발전되어 지체들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마당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수련회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정리:황수진 자매, 남상욱형제)

은혜와평화교회

국내 메노나이트 최초 양심적병역거부자, 이상민 형제 출소

무려 7년의 고민 끝에 15개월 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상민 형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수감되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인으로 살다가 2015년 7월 30일 오전 10시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소후 첫 예배에서 이상민 형제는 말했습니다. “구속되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주변의 우려와 달리 본인은 감옥에서 1년이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민하던 7년이 오히려 자신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고민을 끝내고 병역거부를 선택하고 인신이 구속되던 날 역설적으로 정신은 끝없는 해방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이상민 형제는 인천 집에서 덕소 예배 처소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왔습니다.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상민형제는 수감 전에 예배에 늘 늦고 안 오기도 일쑤였습니다. 수감 전에는 여러 고민에 무기력증이 심했는데, 이제 고민이 사라지니 무기력증에서 탈피했다고요. 감옥에서 특별히 이발사로 발탁(?)되어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던 실력으로 교회 식구들 중

에는 처음으로 저(정용진 형제)의 머리를 산뜻하게 잘라주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 청년을 국가는 무엇 때문에 가두어야 했을까요? 이상민 형제를 계기로 한국 메노나이트교회에서도 국가와 교회, 폭력과 평화에 대한 주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미국 유학생 박윤서 형제, EMU 갈등전환학 석사 마치고 귀국

8월 6일, 은혜와평화교회의 감초같은 존재 박윤서 형제가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재영 형제가 다니던 EMU에서 갈등전환학 수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늘 낙천적이고 유머가 넘치는 박윤서형제인데, 귀국후 첫 만남에서 사람들의 첫 마디는 "왜 이리 깡말랐어?" 였어요. 활력이 넘치는 윤서형제에게도 유학생활이 고되기는 했나봅니다.

이제 명실공히 회복적 정의 운동의 전문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내년 5월경에는 계속 사귀어오던 Abby 자매와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풍문이..

Karen 자매 아버지와 외삼촌, 공동체 숙소 건축 도우려 덕소에 방문

Karen 자매의 아버지 Tom과 외삼촌 Mark가 미국에서 KOPI 사옥이자 공동체 숙소 건설을 도우려 9월 11일 2주간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딸을 시집보낸 아버지의 심정에서인지 칠순 연세에도 연장을 들고 공사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Tom은 베트남전 당시 양심적병역거부를 하여 대체복무로 베트남에서 봉사자로 3년을 계셨던 원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상민형제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는 두 사

람의 양심적 거부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서동욱, 류혜선 부부되다

9월 5일에는 코피, 은혜와평화교회 공동체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서동욱 형제가 함께 KOPI에서 일하고 있는 류혜선 자매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사내연애를 해서 회사의 질서와 윤리를 흩트리고, 여타 싱글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더니만 드디어 두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젊음 그 자체가 너무도 싱그럽던 결혼식이었습니다. KOPI 안에서는 작년에 정용진-최소영 부부에 이어 두 번째 커플인데 역시 전통(?)에 따라 회복적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두 사람이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 딸을 얼른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KOPI 공사는 중반 공정을 넘어서고 워크숍은 계속되고..

KOPI는 7,8월을 가장 바쁜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교사들의 교육수요가 가장 높고, 교육청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KOPI는 사무실을 이전하느라 새로 들어갈 장소를 직접 공사하고 이사하고, 이제는 숙소와 카페로 사용할 공간을 짓기 위해 직원들이 워크숍과 노가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KAC 시절부터 '우리 집은 우리가 짓는다' 정신이 남아있어 무조건 망치를 들고 덤비고 보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른 스텝들이 덩달아 고생하고 있지만, 육체노동은 정신을 맑게 해 주는 비밀을 서로 공유하며 평화를 전하고 만드는 KOPI의 정신과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Peace-building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안전하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완공되면 메노나이트 식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샬롬, 모두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리: 정용진 형제)

LA 이음교회

늘 그리운 형제자매 여러분, LA 이음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PSMC Conference

전계도 형제와 안지영 자매, 주은이는 6/19부터 6/21까지 프레스노의 커뮤니티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열린 PSMC(Pacific Southwest Mennonite Conference)에 다녀왔습니다. PSMC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들의 연합인데, 미국 내의 메노나이트 컨퍼런스 중에 가장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One in Christ)"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스패니쉬 등 다양한 언어로 찬양하고, 아프리카 콩고 교회, 중국 소수민족인 몽족 교회 분들과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고, 데이빗 옥스버거 교수님이 인도하신 로마서 14장 성경나눔 시간을 통해,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함께 소통하고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 귀한 통찰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Rejoice

메노나이트 묵상지인 Rejoice를 이음교회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117060231708477/)에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씩 필자가 바뀌는 묵상을 통해 메노나이트 안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음교회 페이스북 그룹에 포스팅을 하지만, 특별히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은 페이스북 아나뱁티스트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170063313038779/)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을 맞은 선우

샘 형제님, 준이 자매님 가정 막내 아들 선우가 돌을 맞았습니다. 이음교회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때 쯤 태어난 선우여서, 아이의 돌이 더욱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도 벌써 13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작고 느리지만 꾸준히 걷고 있는 이음교회를 위해 늘 기도로 응원해주세요.

(정리: 전계도 형제)

논산 평화누림메노나이트교회

김낙선형제 원은영 자매 가족 방문

캐나다의 김낙선 형제님 가정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봄이 가을이, 그리고 김준 형제 가족도 함께 이틀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고보니 대가족입니다.

주사랑교회 수련회

배덕만 목사님이 섬기는 대전 주사랑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로 다녀가셨습니다. 아나뱁티스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더없이 좋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말씀에 바로 서는 좋은 교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애나 사라와 강한성 학생 환송

1년 간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준 애나 사라 자매가 마지막 시간에도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그림을 그리고 낱말 카드를 맞추며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논산에서의 마지막 날 예배에서 전한 말씀은 강력했습니다. 여린 체구에서 그렇게 급진적이고 제자도에 기댄 메시지를 대하니 그동안 더 깊이 교제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아나뱁티스트 전통이 몸에 밴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엿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강신만목사님의 장남 강한성 학생이 독일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이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애나 사라와 함께 아쉬움과 그간의 추억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축복하며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마침 출국하는 날과 시간이 비슷해서 공항에서 함께 배웅을 했습니다. 애나

사라의 캐나다에서의 삶과 강한성 학생의 독일에서의 공부하는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김준 형제 정현희 자매 소은 가은 초은 채은 공동체 가족으로

캐나다 벤쿠버의 셜부룩 메노나이트 한인교회 멤버였던 김준 형제 가족이 평화누림교회에서 11월 5일부터 신앙과 생활 공동체로 함께 합니다. 함께 농사도 짓고 지역을 섬기는 건강한 모델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함께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해결하고, 출판사역과 도서관 운영 및 다문화사역에 함께 동역하며 한걸음 한걸음 내디딛으려 합니다. 공동체와 제자도 평화의 신앙고백을 잘 조화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화도서관 현황

도서관 건축을 시작한지 곧 1년이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제적 여유

가 생길때마다 조금씩 만들어가다 보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고 카페의 테이블과 다락방 벽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수일에 소질이 있는 김준 형제가 함께 하게되어 속도가 더 붙으리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개관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과 섬김으로 지역에서 역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여행

배용하 형제의 가족이 추석에 1박 2일로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IVEP로 캐나다를 다녀온 큰딸 꽃잎이가 오니 이제 온전한 합체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캐나다에서 원영기 형제께서 방문하셔서 며칠 묵으시며 교제하였고 풀무고등학교의 1학년 학부모 평화교육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배용하 형제)

KAC

지난 호 이후, KAC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SALTER 출국

7월 6일 작년 8월말부터 KAC 사무실에서 일해왔던 SALTER 프로그램의 Samanth Moldovan이 1년의 봉사기간을 마치고 본국 캐나다로 출국하였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산청의 민들레 학교에서 수고하였던 Rebecca도 같은 비행기로 출국하였습니다. 샘은 1년 동안 예수마음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 설교, 주일학교, KAC 사무실 이전 및 도서관 관리, 화천의 고아원인 풍익홈, 청소년들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이 흘린 땀이 KAC의 앞날에 큰 열매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MWC 총회 참석

7월 21~26일까지 미국 펜실바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제 16차 메노나이트 세계협의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MWC 총회는 매 6년마다 전 세계 메노나이트 관련 교회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이전의 총회는 2009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KAC 총무이자 동북아시아 MWC 연락책인 김경중 형제님, 그리고 KAC에서 협력하고 있는 김복기 형제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총회에서 김경중 총무님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박정경수 형제가 함께 한국의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주제로 2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전 세계의 양심적병역거부를 주제로 한 패널 토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총회에서 모처럼 모인 한국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근황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7차 회의는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8월 1일 김솔거, 배꽃잎 입국

작년 8월에 MCC의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IVEP프로그램을 통해 1년을 보냈던 김솔거, 배꽃잎 자매가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잠시 여름 휴식을 취한 후,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KAC에서 참가 후 인턴으로 섬깁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 책의 3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배민정 출국

위에 소개한 IVEP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배민정 자매님이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로 출국하였습니다. 배민정 자매님은 출국 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인도하였고, 앞으로 비전을 위해 회복적 정의의 중요한 대화모임인,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에 참여하여 1년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언어,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봉사 활동을 하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중 총무 환송예배

지난 14년 동안 한국 아나뱁티스 센터와 역사를 같이 했던 김경중 총무께서 2015년 8월 31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KAC는 9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경중 총무의 사역에 감사하며, 신임 총무로 김복기 선교사를 초청하였습니다. 이사회에 이어 12일 오후 2:00~4:00시에는 김경중 총무 및 가족 환송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여 함께 했던 나날들을 돌아보며 축복하는 과

정 속에 흘린 눈물은 지난 14년의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오셨는지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경중 추석 연휴를 보내고 29일 가족과 함께 캐나다 워털루로 출국합니다.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산 역사이기도 한 김경중 형제님과 가족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쉼과 새로운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고 돌아오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10월 1일자로 김복기 총무 사역 시작

신임 총무로 초청받은 김복기 형제는 10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캐나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김복기 형제와 아내 박숙경 자매는 내년 4월 말까지 한국에 체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2달간 캐나다를 방문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AC가 감당해 나가야 할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하여 주십시오.

(정리:황수진 자매)

KAF 소식

2015년 가을 춘천모임, KAF, KAC, KMC(가) 관계설정 논의

2015년 가족 모임을 9월 11-12일 춘천 KAC에서 했습니다.

대전꿈이있는교회, 예수마음교회, 예수촌교회, 경산주님은나의목자교회, 논산평화누림교회, 제주하늘가족교회, 문선주자매가 참석했고, 원영기 형제와 김준형제 가족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날 주요 안건은 KAF와 KAC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한국 메노나이트 교단 설립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먼저 KAF와 KAC의 관계설정은 지난 제주의 논의를 확인하는 선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김경중형제의 우산 그림은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장으로 정확히 기록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후 만들어질 교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워주고 책임지는 그림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올해 안에 공동체별로 구체적인 행동을 할 필요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교단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진행한 것을 이어서, 신앙고백문을 만들어서 회람하고 이에 동의하는 교회가 교단설립 멤버로 결정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각 교회는 신앙고백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10월 마지막 주까지 결정하여 의사를 알려주면 11월 7일 KAF 하반기 정기 총회에서는 최종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의 교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참여 교회들이 꾸려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리: 편집부〉

가메오와 (GAMEO)와 아나뱁티스트 위키백과 사전 소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제 16차 메노나이트 세계협의회 총회 모임에서는 130여개가 넘는 다양한 워크숍이 열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한 아나뱁티스트 백과사전인 GAMEO와 Anabaptist-wiki사정에 대한 소개 워크숍이었다. 백과사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사와 취지를 알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이 워크숍은 현재 캐나다 아보츠포드에 막 들어선 아나뱁티스트 역사박물관장인 리차드 티센(Richard Thiessen)과 고센 대학의 교수이자 아나뱁티스트 연구소장인 존 로스 (John D. Roth)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다음은 2015년 MWC 총회에서 제공된 워크숍 안내 책자의 내용에서 발췌한 간략한 워크숍 소개문이다 .

지난 수 십년 동안 인터넷이 생겨난 이래, 지구촌에는 여러 기독교 자료들이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다. 약자를 따서 만든 가메오는 지구촌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온라인 백과사전(the Global Anabaptist Mennonite Encyclopedia Online (GAMEO – www.gameo.org)이다. 이 사전은 매일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 있어 독자들에게 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정보를 날라다주는 또 다른 온라인 자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The Anabaptistwiki (www.anabaptistwiki.org) 이다. 이 아나뱁티스트 위키는 역사적으로 방대한 양의 문서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독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소식이라든가, 가능한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있다. 위키피디아의 아나뱁

티스트 버전인 셈이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나뱁티스트들은 가메오를 통해 귀한 정보를 받고 있으며, 생생하고 보다 자세한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에 대한 정보는 아나뱁티스트위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두 백과사전의 차이라면 가메오는 보다 검증되고 공식화된 문서이며, 아나뱁티스트위키는 위키피디아처럼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반면, 일정한 검증시스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가메오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은 백과사전 위원회에 글을 보내서 위원회가 내용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출판물로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자료로 준비되어 있다.

이 두 사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가메오는 메노나이트 백과사전의 기반으로 아나뱁티스트 관련 신학, 인물, 기관, 교회, 선교, 교단 등의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메노나이트 백과사전은 1950년대 헤롤드 벤더에 의해 처음

발간되기 시작되었고 1990년까지 총 5권이 출간되었다. 한편 캐나다 메노나이트 역사학회에서는 캐나다 중심의 메노나이트, 아나뱁티스트 자료를 구축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면서 좀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05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와 메노나이트 미국 역사위원회가 관심을 보이고, 2006년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MCC), 그리고 2007년 메노나이트 세계협의회(MWC)가 전 세계 아나뱁티즘(Global Anabaptism)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가메오가 운영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시작된 북미의 프로젝트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관여하고 있다. 현재 가메오는 메노나이트 출판사인 헤럴드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메노나이트 백과사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백과사전의 거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새로운 항목이 표제어로 등록될 때는 가메오 위원회에서 글을 받고 학술적 자료로 타당한지를 검증한 후에 등재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가메오는 부분적으로 프랑스어, 독일어로 가능하지만, 원래 글은 영어로 준비되어 있다. 최근에 보다 더 많은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메오는 매일 약 1,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메오를 통해 아나뱁티스트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아나뱁티스트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되어 이 곳에 소개한다.

〈정리:편집부〉

서바이벌 영성 (Survival Spirituality)

파블로 형제
(미국 보스톤)

무슨 일을 하든 첫 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 메노나이트의 첫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바이벌 영성(Survival spirituality)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노나이트 첫 세대를 생각하면 물론 16세기 아나뱁티스가 먼저 떠오르지만, 파라과이에 태어난 사람인 저는 자연스럽게 파라과이에 이민 온 초창기 메노나이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19세기 말부터 소수의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그리고 결국 머나먼 파라과이까지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 결과 1927년도에 1,743명이 파라과이로 첫 이민을 왔습니다. 그들은 짜꼬(Chaco)라는 지역에서 살게되는데, 그 지역을 "녹색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옥처럼 더운 사막이지만 이상하게도 특유의 식물이 잘 자라서 녹색의 땅처럼 보입니다. 더위와 의료시설의 부재 속에 첫 이민자 중 1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민자 중 60가정은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파라과이 초기 메노나이트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세계의 전쟁과 핍박 속에서 짜꼬로 피난 오는 메노나이트의 수는 점점 늘어갑니다. 메노나이트 인구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녹색 지옥"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려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그들은 온 힘을 대해 그 땅에서 하

루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 삼대 째까지 살아남은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파라과이인들이 짜꼬에 있는 메노나이트 마을을 보면 모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막 한 가운데에 도시를 세우고, 오아시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남겠다는 다짐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메노나이트는 짜꼬를 넘어 파라과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이 만든 식품, 예를 들어 우유, 치즈, 햄, 소세지 등은 파라과이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그들이 사육한 소고기는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알려져 수출도 합니다. 또한,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오토바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순시온 근교에는 두 개의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어떻게 녹색지옥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세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살아남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루 하루를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워 그 뜻을 이어갑니다. 2세들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북미와 유럽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마을과 산업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북미와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관계와 자원들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 남겠다는 1세들의 노력과 인내를 바탕으로 2세들의 신앙과 책임 의식은 짜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인 메노나이트 첫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해야하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메노나이트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은 메노나이트의 높은 윤리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로 사는 삶에 매력을 느끼지만, 살면 살 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평등한 문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니다. 40대 성인이 영어를 처음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인문학만 공부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늘 기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의사소통 문제로 속상한 일을 경험하며,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산더미 만큼 많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워야 하고, 저널도 만들어야 하고, 남북의 갈등 속에서 평화를 전할 사명도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자원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첫 세대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바이벌 영성입니다. 서바이벌 영성은 켈리 브라운 더글라스(Kelly Brown Douglas)가 쓴 『흑인 예수 *The Black Christ*』라는 책을 읽다가 감명을 받고 떠오른 단어입니다. 저자는 친할머니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남으신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 남은 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내가 없어지길 바랄지라도, 나의 신앙을 위해 죽지 않고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009년도에 출간된 *Spirituality of Survival*이라는 책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생존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생존"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는 세력을 초월해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솟아오르려면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모두 받아서 솟아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세력에 억눌려 계속해서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며 결국 자살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바이벌 영성이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반대하고 억누르는 세력을 대항하고자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아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절망이, 주변의 세력이, 외로

움이,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살아남아 위로 솟아오른는 영성이 서바이벌 영성입니다. 이렇게 살아남는 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소수의 무리가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영성입니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현실감각 없이 그런 교회를 할거니? 너희들끼리 몇명 모인다고 뭐가 되니? 왜 굳이 메노나이트니? 분단 국가에서 무슨 평화?" 이러한 말을 들으며 무시와 비난을 받을 때에도 꾸준히 모이고, 평화의 복음을 품으며 하루 하루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서바이벌 영성입니다. 남들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한인 메노나이트로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전 여기서 서바이벌 정신(멘탈리티)과 서바이벌 영성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서바이벌 정신은 남을 이용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이웃을 힘들게 하거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바이벌 영성은 살아남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지금 처한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며,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되 이용하려 함이 아닌 간청을 하는 것이며, 거절 당해도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의 문을 두드리며,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리고, 찾게 되며, 응답을 받게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수이고 약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남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성인이라면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겸손히 도움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첫 세

대가 할 일입니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영성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 온 길을 우리 한인 메노나이트도 걷고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다양한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상황을 신앙의 힘으로 견뎌내고 살아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웃과 후세에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바이벌 영성, 이것이 한인 메노나이트 첫 세대가 품어야할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흑인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를 나누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I Need You To Survive (by Hezekiah Walker)

I need you, you need me, we' re all a part of God' s body
Stand with me, agree with me, we' re all a part of God' s body
It is his will that every need be supplied, you are important to me
I need you to survive, I need you to survive

I pray for you, you pray for me, I love you
I need you to survive, I won' t harm you with words from my mouth
I love you, I need you to survive

기고글

후터라이트 공동체에서 온 편지 - 1

*이 글에서 인물 및 장소는 가명입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삼가는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전통과, 각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려는 의도입니다.

고학준 형제
hakjoonko@gmail.com

1.

십 년 넘게 영어 회화를 가르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더딥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경향성은 더 선명해집니다. 영어 점수가 평균보다 높았을 소위 명문대생 그룹이나 그룹보다 회화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건 미스터리였습니다. 분명 그동안 영어 공부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텐데 말입니다.

2.

지난 주 금요일, 저녁 먹고 목공소에 갔더니 조슈아가 건물 아래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더니 대니가 양쪽 끝에 대놓은 합판과 스티로폼을 떼어내라고 지시했답니다. 목공소에서는 지금 목조 건물 네 채를 짓고 있고, 대니는 목공소 소장(Boss)입니다. 이걸 왜 하냐고 물었더니 실수로 잘못 들어갔답니다. 실수한 사람도 미안해하는 눈치가 아니고, 뒷처리를 하는 사람 역시 원망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다음날 오전 참(Morning Lunch: 조식과 중식 사이 먹는 간식) 시간까지 네 채 모두 해체 작업을 완료했죠.

수요일에는 철공소에서 양철판을 잘랐습니다. 천장 단열재 자리를 잡아

줄 막이입니다. 처음 다루는 기계들이라 조심조심하며 작업을 해도 서툰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후에 철공소 소장 매튜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잘 돼가냐고 물으시길래 잘못 잘라놓은 판들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잡을 수 있는 실수는 걱정할 필요 없어"라며 웃으십니다.

3.

캐나다 존스벅 후터라이트 공동체(Johnsbuck Hutterian Brethern)에 온 지 삼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오전 일곱 시에 일어나 아침 먹고 한 시간 반 일하고, 참 먹고 한 시간 반, 점심 먹고 두 시간, 이런 식으로 저녁 여덟 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평생을 교실과 사무실에서만 지냈는데 야외에서 몸을 쓰며 일하니 힘들어도 신이 납니다. 목공소 일이 체질에 맞나 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 십오 세 미만의 남자 아이가 마흔 여섯 명이라네요. 여름방학 기간이라 어딜 가도 아이들이 우글우글댑니다. 일터에도 몰려와 뭐 할 일 없나 기웃거립니다. 여섯 일곱 살 꼬맹이들은 위험하지 않은 밭에 가서 토마토를 따거나 감자를 캐고요, 열 살짜리들은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일터(Shop)에서 잔심부름을 합니다. 이 나이대 친구들이 소형 트랙터나 지게차 운전수 노릇도 곧잘 합니다. 열두세 살 쯤 되면 본격적으로 어른 일을 돕습니다. 붙어있다가 할 일이 없어지면 혼자 이것저것 만들어보거나 연습도 하고요. 열다섯이 되면 성인입니다. 이미 사오 년 경력이 있어서 매우 능숙하게 일을 할 뿐 아니라, 대형 농기계나 각종 중장비도 거침 없이 다룹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곱 살 짜리가 친구들을 잔뜩 태우고 카트를 몰고 다닌다거나, 열다섯 살 짜리가 바퀴가 어른 키만한 콤바인을 운전하고 가는 걸 보면 왠지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죠.

하지만, 공동체 식구들은 그 누구 하나 걱정하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정해진 규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엄하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일에 방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는 바로 퇴출입니다. 하지만 도울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설퍼도 일단 하게 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와서 고쳐줍니다. 조금 위험해 보여도 내버려 둡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크게 다칠 상황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거침이 없습니다. 옆사람 눈치 보지 않고, 틀릴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단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이답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4.

지인 중에 입시 전문 과외 선생님이 있습니다. 최근 입시는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수능이 쉬워져서 한 문제만 틀려도 그 과목에서 한 등급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최소 오륙 년의 기간 동안, 선생님과 부모님은 실수하지 않는 학생이 되게끔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지요. 아이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됨을 포기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금의 십대들 만큼은 아닐지라도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온 것 같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사회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대학 간판이 바뀌고, 대학 간판이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뀌는 곳. 혹이나 다쳐서 장애 등급이라도 받게 되면 평생 자립할 수 없는 곳. 성공을 향한 최단코스를 질주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고 항상 주입받는 곳. 그런 곳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제게는 의문 투성이였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주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왼 뺨도 돌려대라는 말은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검을 내려놓으라 했으니 정말 내려놓아야 하는 건지. 매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나는 어찌 해

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혼자만의 실수일 수도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실수 없이 성화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성장 과정이라도 시행 착오 없이 가능할까요? 아이는 수없이 넘어진 후에 비로소 걸음마를 떼고, 한참은 기괴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와 '밥'과 '줘'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원대한 목표를 향해 가며 매순간 고민하고 헤매고, 엎어지고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루하루가 온갖 실수로 점철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좁은 길을 아예 가고 있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막10:13

덧.

참,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영어 회화가 더딘 이유요? 실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으로, 남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수없는 실수 없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저자 소개〉

저자는 아내와 함께 직장을 그만 두고, 세계 각지를 떠돌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멋진 세계여행, 혹자는 철없는 방황, 또 다른 누군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이 길 위에서, 뭐가 되었든 걸어가는 근육이 키워지면 된 거라며 여유를 부리는 중입니다.

광고

제 1회 아나뱁티스트 신학 학술대회

아나뱁티스트 신학 1차 논문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평화, 제자도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아나뱁티스트라고 하면서도 정작 아나뱁티스트의 전통과 정체성, 역사와 신학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러기에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비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아나뱁티스트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아나뱁티스트가 시작되었고, 왜 이들은 순교적 각오로 신앙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나뱁티스트 실천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한국의 아나뱁티스트의 좌표를 설정하고, 가야할 로드맵을 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논문 발표 시기는 최초의 아나뱁티스트로서 침례를 받은 1월 23일에 맞출까 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아나뱁티스트 주간을 만들어 진행할 지를 의논했습니다. 대체로 종교개혁 주간에는 여러 행사가 겹치고, 준비 기간으로는 촉박하고, 무엇보다도 아나뱁티스트의 고유한 정신과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1월에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논문발표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 결과물은 책으로 출판합니다. 첫 번째 발표회이기에 주제는 "왜 아나뱁티스트인가? 무엇이 아나뱁티스트인가?"(Why Anabaptist? What Anabaptist? 잠정적 제목입니다.)입니다.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논문의 성격은 지나치게 학술적이기 보다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아나뱁티스트 신자와 관심 있는 대중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이 되도록 할 참입니다.

현재는 발표 예정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작은 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공자와 연구자 풀이 너무 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연구자를 네트워크할 것이고, 새로운 연구자를 찾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참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소장(한국 아나뱁티스트 신학연구소, Korea Anabaptist Institute, 로고스서원 대표)

1. 일시 : 2016년 1월 23일 오전 10시 오후 4시
2. 장소 :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종로 5가)
3. 회비 : 2만(자료집과 식사 제공) – 혹은 3만
4. 발표
   1) John Roth (AMBS) : 기조 발제
   2) 남병두 교수(침신대) : 종교개혁적 맥락에서 본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의의
   3) 이상규 교수(고신대) : 아나뱁티스트의 평화주의
   4) 김기현 박사(로고스교회) : 탈콘스탄틴주의로서의 아나뱁티스트
   5) 전남식 목사(꿈이있는교회) : 아나뱁티스트의 교회론
   6) 문선주 교목(영강쉐마기독학교) :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
   7) 김성한 간사(Trinity, Ph.D cand) : 아나뱁티스트의 선교론
   8) 정원범 교수(대전신대) : 아나뱁티스트의 한국적 의의

연재 5-3

BFC 3: 성과 관련된 주제를 신실하게 다루고 분별하기 위한 계획

연재하는 BFC 시리즈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앞에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분별의 과정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형제교회가 기울인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 분별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버트 수더만 (Robert J. Suderman)

신실한 교회되기(BFC) 단원 3은 2011년 MC Canada 총회(Waterloo)에서 발표되었으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교회 대표들의 승인을 받았다. 다음은 그 당시 추천된 사항들이다.

대표단 결정사항: 2011년 7월 캐나다 메노나이트(이하 MC Canada) 총회

성과 관련하여 MC Canada안에서의 지속적 분별을 위한 기틀과 계획으로서 이 문서를 승인한다. 이것은 또한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General Board(대의원)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가 지역 교회 및 개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 계획과 분변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2011년 7월 MC Canada General Board에 의해 추천된 사항

개요

이 문서에 있는 질문, 응답, 계획들은 2009년과 2010년 MC Canada 총회의 대표들에 의해 처리된 2개의 자료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 문서는 우리가 이미 관여해 온 과정의 열매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

MC Canada 지역 교회 및 개 교회 대표들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BFC 1(2009년 6월)에서 강조된 몇 가지 중요한 점들

a)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지속적인 책무이다.

b) 성경이 교회의 지속적인 분별을 위한 기초이다.

c) 성경의 어떤 목소리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d) 교회는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그대로 살려고 한다.

e)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메노나이트 신앙 고백(Confession of faith)" 과 같은 이전의 문서들을 갖고 있으며 이것들은 어떤 다른 것이 분별될 때까지 우리 삶의 기초로 충분하다.

f) 분별을 통해, 교회는 다시 말하되 이전에 말했던 것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새로 이해한 것으로 변경한다.

g)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분별을 인도하심을 믿는다.

h)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리 결정하기 보다는 "교회적 방법"으로 분별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i)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별을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해 왔다.

BFC 2(2010년 7월)에서 강조된 몇 가지 중요한 점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평화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질문에 적용해 보았다.

a) 우리의 평화교회-평화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된 성경 해석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b) 평화교회-평화주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 사용되는 성경적 목소리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c) 우리의 분별하는 스타일과 우리가 내린 결론들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

는 실제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d) 성경 안, 밖의 소리들에 대한 영을 분별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 교회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끊임없는 분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교회에서 이해하는 성

General Board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교회생활에서의 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그러한 도전들 가운데 하나이다. 동거, 동성애, 간통, 음란물 등과 같이 교회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교단 안에 어느 정도 표면화된 논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개인들이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갈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러한 상처들과 분열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정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분별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들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바람이다.

General Board에서는 분별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 사안들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분별했다. 교회는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또한 21세기에 캐나다에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기쁜 사역의 일환으로서 필요하다.

BFC 과정을 밟기 위해 제안된 시간계획

1) 2011년 7월 총회: 향후 4-5년 동안 다룰 것들에 대한 논의. 절차는 대표단에 의해 채택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2) 2011년 9월 – 2012년 3월: 성경 해석의 지침이 될 기준들에 대한 논의.

3) 2012년 7월 총회: 성경 해석 기준들에 대한 승인. 학습 주제는 성경 해석에 초점을 둘 것이다.

4) 2012년9월 – 2013년 3월: 동거, 동성애, 간통, 음란물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교회생활에서의 성에 대한 토론 을 시작한다. 2013년 총회에서의 발표 준비.

5) 2013년 7월 총회: 준비된 대로 교회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6) 2013년9월 – 2014년 3월: 총회에서 이루어진 토론 내용들과 결정 사항들에 대한 모두의 의견을 수집.

7) 2014년 7월 총회: MC Canada는 이러한 과정 중에 확인된 이슈들 중 일부에 대해 다시 말할 것이다.

다음 단계들

우리는 기독교/메노나이트 교단이다. 교단의 각 지체들은 분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문서는 분별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교단의 중심 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서에서 소개되는 과정은 개 교회나 지역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BFC 1과 2에서는 공동의 분별을 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골격을 제시한 후 그것을 "평화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과제에 적용해 봤고 BFC 3에서는 건강한 교회적 분별의 핵심을 다루게 된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 이슈들을 열거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 그와 같은 분별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표단의 토의를 돕기 위해, General Board에서는 동일한 이해를 요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했다. 또한 함께 언급되어야 할 다른 항목들도 있을 수 있다. General Board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제공했다. 이 답들은 계획의 골격을 보여준다. 이것들은 MC Canada 대표자들에 의해 시험되고/편집되고/승인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

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시작하기

1)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어떻게?

a) 기도, 깊이 있는 성경공부, 예배, 묵상, 금식, 예술의 사용 등(이들 중 일부는 이미 BFC 1과 2에서 언급했었다)과 같은 최선의 영적 훈련으로 이런 과정을 뒷받침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분별에 초대하게 된다.

b) 성령의 인도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 잘 듣는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 상호존중의 대화를 실행하는 것, 침묵하는 것, 토론의 기본 규칙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c) 분별의 결과를 미리 결정하고자하는 유혹을 뿌리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올바로 초청할 수 있다.

d) 성령의 인도를 원한다면, 우리의 외부와 우리에게 인접한 다른 그룹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도 열려있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이 의도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고, 가끔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

e)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분별을 일치로 이끄시길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음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목소리들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성령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f) 우리의 다름과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하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초대한다.

2) 성경의 권위가 교회생활의 기초이다.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나?

a)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교회에서 성경이 펼쳐질 때, 교회의 삶 가운데 성경의 권위가 살아난다. 그와 같은 분별의 열매가 교회의 삶과 믿음을 인도한다.

b) 그러므로 교회 멤버십의 참여가 분별의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A. 책임과 권위에 관한 질문들

1) 누가 전체 교단을 위한 분별 과정을 인도하고 중재할 책임과 권위를 갖는가?

2) 전체 일정에 대한 책임과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3) 여러 단계로 구성된 분별의 과정이 진행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만한 일치가 이루어 졌다고 선언하는 책임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4) 교회를 대신해 발언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은 누가 갖는가?

– 질문에 대한 응답

a) MC Canada의 정책은 두 단계 멤버십을 인정한다. 개 교회들과 지역 교회들. 최종 책임과 권한은 이 들 멤버들을 대표하는 대표단들이 갖는다.

b) 진행 중인 돌봄과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책임과 권한은 피선된 General Board와 위원들에게 있음이MC Canada 내규에 정해져 있다. 이 위원회는 지역 교회들, 개 교회들, 프로그램 협의회, 믿음과 삶 위원회, 그 밖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c) 분별 중에 있는 General Board를 돕기 위한 '협의와 분별' 의 또 다른 중요한 그룹들이 있다. 지역 교회 Moderator들과 Executive 리더십과 지역 교회 사역자들로 구성된 그룹이 있고, 믿음과 삶 위원회가 있고, MC Canada의 Executive 스태프들이 있고, General Board의 Executive 위원회가 있고, MC Canada의 프로그램과 재정 위원회가 있다. 또한 General Board는 필요에 따라 다른 그룹들과 폭 넓게 상의한다.

B. 과정에 관한 질문들

1)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허용하는 길이 열려 있음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2) 의사결정에 관한 일정은? 3) "다시 말함"에 사용될 과정은?

4) 논의될 중요한 질문들은?

– 질문에 대한 응답

a) 학습 및 의견수렴 도구가 고안될 것이며 MC Canada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이에 응답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b) 가능한 사용자 위주의 응답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c) 개인 응답, 교회 수준에서의 응답 혹은 그룹별 응답 모두 가능하다.

d) 과정의 수순을 따라 모든 응답을 수집정리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e) General Board는 이러한 계획(BFC 3)을 2011년 7월 MC Canada 총회에 제출할 것이다. 대표단들은 이 계획을 수정, 승인 혹은 거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f) 이 계획의 일부(아래 참조)는 2011년7월 이후에 시행될 것이며 토론과 확정을 위한 종합 보고서가 2012년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g) 이번 과정 중에 중요한 질문들이 드러나기를 희망한다. 이 질문들은 2013년 총회에서 발표/승인될 것이다.

h) 확인된 질문들과 그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MC Canada는 2014년 총회에서 "다시 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질문들을 한 번에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C. 내용에 관한 질문들

1) 성경의 어떤 목소리들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데 사용될 기준들은 무엇인가? 그 기준들은 우리의 "다시 말하기"가 이전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지, 이전 것을 수정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말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 이것은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질문이다. 우리는 함께 분별하기 원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폭넓은 참여와 의견을 요청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그 기준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b) 이러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견 수렴 도구가 개발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습이 성서적 신앙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감각을 강화하고 우리 회중들 뿐 아니라 분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지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c) 응답자들이 감지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한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류하고 정리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목소리들을 신실하고 바르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틀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2) 교회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a) 분별의 과정의 열매는 교회의 상처나 분열이 아니라 신실함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있다. 때때로 신실함이란 몸 안에 새로운 세포들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b) 분별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의 앞으로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우리는 다같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51%가 옳다면 49%는 반드시 틀리다' 라는 "민주적" 해결 방법은 교회에는 맞지 않는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반대편"이라고 하는 답변 또한 교회에는 맞지 않는다. 자주 인용되는 정치적 슬로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또한 교회에는 맞지 않는다. 청사진은 없다. 분별의 과정 중에 찾아야 한다.

가야할 길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정의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과

정 가운데 알게 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과정들과 결정들은 다른 과정들과 결정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생각이다. 이 문서에서 아직 생각해 내지 못한 길들을 과정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것들은 순차적 과정들이 아니고 병행적 과정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과정들은 동시에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 기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General Board는 대표단 승인을 위해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성과 관련된 질문들에 의해 나타난 도전들은 복잡하고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교훈들은 있지만 우리들의 분별의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다른 교단들로부터 빌려올 수 있는 쉬운 "메뉴"는 없다. MC Canada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예상된 민감성과 표준과 과정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우리가 자체적으로 접근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기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의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최고의 전문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담대하고 겸손한 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

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드는 과정들과 결정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2) 우리는 활력을 얻어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며 3)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교단 내외의 젊은이들, 캐나다 내의 아나뱁티스트 자매 교단들, 미국에 있는 자매 교단들,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리더십과 멤버들, 우리가 가입한 개혁 교회 단체들(EFC, CCC), 우리와 연관된 범종교 단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메노나이트와 다른 기독교인들, 대중 매체와 언론 등 많은 이들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분별을 하는 그곳에 말다툼, 내분, 세력 다툼, 험담, 성냄, 수군거림, 위협, 분열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고백과 외부를 향한 우리의 선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진실을 말하고 겸손과 성실과 신뢰와 비폭력의 정신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의 필요성을 그리스도의 몸에 부여된 달갑지 않은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이들을 향한 증인이 될 가능성을 볼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하나님의 때[kairos])을 분별하고"(눅 12: 54-56), "영을 분별하고"(요한1서 4: 1),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엡 4: 1),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빌 1:27)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는 세상을 향한 "허다한 증인"(히 12:1)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것인가?

우리는 담대하게 위험스러운 대화 속으로 발을 들여 놓으려 하고 있다.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긍정적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에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인간적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뜻과 우리의 길을 담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과정 그 자체가 제공하는 증인으로서의 선교적 잠재성과 비교할 때 우리 분별의 최종 결과물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믿는다.

결론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살아야 한다. 즉, 교회의 연합은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선포하는 성령님의 선물이다. 이 심오한 통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삶 위원회가 2006년에 우리를 도와주었다.

믿음과 삶 위원회의 설명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연합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는 측량할 수 없이 더 큰 어떤 것에 의해 우리는 서로 묶여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우리가 만들기로 선택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는지에 관해 특별히 말하고 있다. 바울의 생각에 이보다 더 근본적인 분열은 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벽을 허무시고 그 두 원수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1]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내린 결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최고의 믿음의 자리를 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직 믿음만으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 3: 28-29).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을 통해 모두 함께 평화의 띠로 묶여 있다 (엡 4: 3).

2011년 7월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General Board)

---

1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2006년 7월 에드먼턴 총회, 믿음과 삶 위원회 발표, 2페이지 (http://www.mennonitechurch.ca/resourcecentre)

연재 10-6 존 하워드 요더

존 하워드 요더 - 기독론

최근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메노나이트 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으나, 가능한 다음의 순서를 따라 연재글을 싣고자 합니다.

1. 신학적 유산: 존 하워드 요더, 글을 시작하며 / 2. 존 하워드 요더-추도사를 통해 본 그의 인생 / 3. 존 하워드 요더-예수의 정치학 / 4. 존 하워드 요더-기독교 윤리학 / 5. 존 하워드 요더-평화학 / **6. 존 하워드 요더-기독론** / 7. 존 하워드 요더-교회론 / 8. 존 하워드 요더-그의 신학과 저술 / 9. 존 하워드 요더-죽음과 그 이후 / 10. 존 하워드 요더-교회와 상호책임 속의 존 하워드 요더

김복기
(캐나다메노나이트선교사)

이 글은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와 그의 신학에 대한 연재 중 여섯 번째 글이다. 2013년 메노미디어(MennoMedia;미국과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출판사)는 요더의 성적 탈선에 대한 이슈와 관련하여 그의 책 출판을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오랜 숙고 끝에 요더가 남긴 유산의 "복합적인 긴장들"을 독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앞으로 발행되는 모든 책에 그의 성적 탈선 사실을 밝힌 서문을 싣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 후 다음과 같은 서문과 함께 요더의 책이 발간되고 있다. 2015년 1월 MQR은 약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미국 메노나이트, AMBS, 지방회 및 그가 속해 있던 교회가 고민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1] 2015년 3월 22일 AMBS의 Sermon on the Mount 채플에서 피해여성들과 함께 슬퍼하고 죄용서

1 Mennonite Quarterly Review 2015년 1월호를 보라.

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2] 그리고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캔자스 시티에서 열릴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총회(연례회)에서는 요더의 성적 탈선에 대한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고 다루었다. 존 하워드 요더의 연재 글마다, 메노미디어가 발표한 서문을 번역하여 실었다.

> 존 하워드 요더(19271997)는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메노나이트 신학자이다.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 그의 업적은 메노나이트 교회 전통 밖에 있는 독자들에게 아나뱁티스트운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요더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
> 헤럴드출판사는 화해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빚어진 일과 관련된 복잡한 긴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가 권력과 지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요더와 그의 업적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요더가 이러한 성적 탈선행위의 장본인이었음을 독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
> 요더의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며, 개인, 학자, 교회의 유산으로서 그의 업적을 보다 온전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씨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출판한다.[3]

대한민국 개신교에는 두 개의 큰 산맥이 존재한다. 큰 산맥 하나는 예수교이고 또 다른 산맥은 기독교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는 예수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교이다. 기독교라고 말할 때, 이는 그리스도를 중국어

---

2 https://www.ambs.edu/news-events/reunion-listening-confessing.cfm 2013년 7월 25일 AMBS 총장의 "정리되지 않은 일Unfinished business"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은 후, AMBS는 요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인정하는 공식적 예배와 의식을 준비하였다. 2015년 3월 21,22일 양일간, AMBS와 피해여성들을 포함한 이전의 리더,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피해여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애도하고, 피해 여성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퍼스 건물 안, 요더에 의해 성추행이 행해진 공간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기사는 http://mennoworld.org/2015/03/23/news/ambs-on-abuse-we-failed-you/ 를 참고하라.

3 메노미디어 및 요더의 책에 실린 원문의 번역.

식으로 음을 빌려 쓴 것이 기독이다. 말하자면 예수회가 있고 그리스도회가 있는 셈이다. 장로교는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루터교 등 대부분의 교단은 기독교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류하고 있다.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와 제자들이 기록한 여러 서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한 곳과 그리스도 예수로 기록한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인간 예수에 관한 기록이므로 예수 행장이라 할 수 있다. 복음서에는 예수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다. 그러나 예수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여러 다른 호칭으로 불렀고,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호칭으로 예수를 불렀다.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예수의 호칭은 인자(Son of Man), 종(servant), 선생(Rabbi, master, teacher), 선지자(prophet), 그리스도(Messian/Christ), 신의 아들(Son of God), 주(Lord) 등이다. 이는 예수가 살아 있던 당시에 불리던 호칭들로써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의미심장한 질문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결국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던져지는 질문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 신학의 분과는 크게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4] 그렇지만, 신학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발전과정과 관심의 대상에 따라 신학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게 된다. 성서신학은 지금처럼 분류되기 이전 정경의 형성과정에 따라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읽혀왔다. 이미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성서는 모세오경, 역사서, 문

4 성서신학의 분과는 실로 다양하다. 성서신학, 조직신학은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과 성격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실천신학, 변증신학, 자유신학, 자연신학, 목회신학, 과정신학, 희망신학, 사신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등으로 나누어 공부하기도 한다. – 역자 주

학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등으로 잘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성서의 원래 구성을 넘어 주제별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조직신학은 Systematic theology을 번역한 것이며 그 주된 내용은 성경에 대한 이해 (성서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기독론),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론),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론), 구원에 대한 이해 (구원론),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해 (종말론) 등으로 되어 있다. 삼위 하나님 중 제 이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로 기독론이다.

기독교는 단어가 제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이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신약성경이 경전으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주로 이미 있던 예수 사건에 관한 내용이 구전으로 회자되었다. 그러니까 문서로 정리되어 정경으로 채택 된 것은 후대의 일이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란 사람의 이야기를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그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 의해 예수 이야기가 구전되었고, 이렇게 구전되던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 의해 정리된 책이 복음서라는 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는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후세에 발견된 도마복음서 등 여러 복음서가 존재한다.

단편이든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든 이러한 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때로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서술형의 복음도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로부터 변증하고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성경 내에 존재하는 이단의 내용과 신앙의 변절에 대한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되고 회복해야할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탁월한 신학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자신의 입장에서 저술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약의 서신들이다. 물론 당시에 신학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인 요한과, 히브리서 저자와 같은 탁월한 신학자들이 있었다. 이 서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

는가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시간이 흘러 사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자, 소위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을 우리는 초기 교부들이라 부른다. 이후 사도신경과 정경채택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애를 썼고, 때로는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다가, 때로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쟁에 의해 저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개최되었고, 삼위일체 교리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이천년의 기독교 신학을 몇 줄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신학이 가졌던 관심 및 중심주제의 변천은 예수사건 (4BCE~30CE), 제자들의 활동과 메시지 (30~50CE), 교회의 태동과 초대 교부들의 활동 (50~150CE), 사도신경의 채택 (2~3세기),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 및 니케아 종교회의 (4세기), 여러 가지 다양한 신조의 태동 (4세기~현재), 속죄론에 대한 이론 발전 및 중세의 예전의 형성 (4~16세기), 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한 논쟁 (종교개혁기), 경건주의 및 성령운동을 통한 경험 (17~18세기), 성서해석 (현재) 등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16세기에 등장한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성서를 근간으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1세기로 되돌려 놓고자 했다. 이 운동의 핵심에는 성서에 대한 이해 및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반영되어 있고,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와 제자도가 있다. 이들의 신학은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령에 의한 성서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 여러 다각적인 해석론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표방한 독특한 시각은 구약의 맥락 속에서 신약을 이해하였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시대별로 다르게 보기보다는 역사의 연속성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강조하였다.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들에게는 그 어떤 신학적 주제도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관되어 있는 통전적 이해가 있었다. 물론 한때 성령주의 운동으로 종말론을 강조한 그룹도 있었지만, 역사적 검증을 통해 모두

사라지고 그 이후의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평화주의, 교회론, 공동체 중심의 특성이 강화되었다. 하여 아나뱁티스트에게는 종말론이 되었든,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되었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든 작고 큰 주제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하나의 신학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나뱁티스트 신학은 성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더라도 성서신학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다루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신학의 핵심 이슈들 마다 예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자리해 있다. 토마스 핑거나 제임스 라이머와 같은 조직신학자들이 아나뱁티스트 내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나뱁티스트 신학자들은 성서신학자들이다. 조직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나뱁티스트 내 조직신학자들의 근간은 성서신학을 본류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5] 이는 성서해석공동체로서 성령에 의존하여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해왔던 아나뱁티스트의 전통이 가져온 자연스런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존 하워드 요더는 기독론을 별도로 연구하지 않았다. 그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독자들이 직접 성경을 통째로 읽도록 추천하고 있기에, 요더의 신학을 지금 이 저널에서 글을 쓰는 주제별 접근방식 또한 반기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호에 요더의 기독론을 다음호에 교회론을 별도로 분류하여 연재글을 쓰는 이유는 요더의 신학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며, 요더 신학의 근간이 여기에 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미 앞의 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요더의 신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당연히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몰고 왔다. 하여 이번 글과 다음 글은 약간의 조직신학적 이해로 보일 수 있는 요더의 그

5) 실제로 요더의 스승이었던 헤롤드 벤더가 이끌었던 인디아나 고센의 고센대학 신학부는 1950~60년대 당시 학과목의 2/3를 성경과목을 중심으로 한 성서 연구에 할애하였다.

리스도론이자 교회론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 글은 2002년에 출간된 *Preface to Theology – Christology and Theological Method*를 근간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6]

1. 요더의 그리스도론은 진짜 예수 (Real Jesus)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예수는 가짜냐?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예수의 정치학』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가 너무 편만해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요더는 예수를 조명함에 있어 성경적 현실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전통적인 현학적 성향에 빠지지 않은 채 문학비평과 역사비평이라는 모든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성경을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는 성경이해 방식이다.[7] 그는 성경적 현실주의를 표방하면서 "진짜배기 예수 real Jesus"를 요구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알렉스 사이더가 『신학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요더에게 '진짜배기 예수'란 태어나고, 살고, 가르치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뛰게 하고, 눈먼 소경을 보게 하며, 귀신을 내어 고, 잘못된 유대 정치인들과 맞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 예수"[8]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 나서면서 진짜배기 예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요더에게 "역사적 예수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배기 예수"[9]다.

이러한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 요더는 우선 성서해석학적 작업을 중요하게 여긴다. 평화학 이전에 기독교 윤리학을, 기독교 윤리학 이전에 현

---

6) John Howard Yoder, Preface to Theology: Christology and Theological Method, 2002, Brazos Press.

7) 존 하워드 요더, 예수의 정치학, IVP, 1장.

8) John Howard Yoder, Preface to Theology: Christology and Theological Method, 2002, Brazos Press, 25.

9) 앞의 책

대 신학을, 현대 신학 이전에 성경주석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요더의 입장은 그의 성경적 현실주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그를 읽는 독자들이나, 그의 강의를 듣는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직접 만나도록 도전한다. 이는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이 반성직주의를 표방하면서 필부필부들이 직접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식자들에 의한 해석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직접 정경 전체를 읽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아나뱁티스트 성서학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요더의 『신학서문』이라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예수"를 직접 만나보도록 초청한다. 비록 이 책이 그리스도론과 신학하는 방법을 개관하기 위한 준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함으로써(hermeneutics of peoplehood) 진짜 예수를 만나 혁명적 복종을 통해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돕기 위함이다.[10] 어쨌든 요더의 그리스도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예수를 만나도록 독자들을 초청한다.

2. 요더의 그리스도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론과 그리스도론을 빼면 그건 유대교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독교는 아니다. 조직신학의 온갖 중요한 주제를 다 섭렵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론을 빼면 그건 기독교 신학으로서 자격이 없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드라마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종말론의 핵심에 있어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없이는 드라마가 끝나지 않는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의 삶의 가장 중

10) 앞의 책, 27.

심에 두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 요더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메시지를 먼저 듣도록 초청한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예수와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초청한다.[11]그 후 기록된 문서로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듣도록 초청한다. 그 뒤를 이어 바울이 받은 전통과 신학, 그리고 히브리서와 요한서신의 저자에게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도록 초청한다. 사도들의 사후에 그들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발전시킨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과 사도신경 및 각종 신조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와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칼케돈 신조와 예수의 인성에 대해 탐구하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과 발전은 변증이라는 방식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토론은 논쟁으로 논쟁은 서로를 향한 진위 여부로 드러나기도 했다.

모습이야 어떻든지 요더는 예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 기록의 산물인 성경을 기본으로 하며, 성경의 내용 중 이야기(Narrative)를 중시하고, 청자와 화자를 예수 그리스와 직접 연결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형이상학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제자들이 만나고, 만지고, 듣고, 보고,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단적으로 요더의 예수는 논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예수가 아니다. 원래 복음서는 변증이 아니라, 체험된 이야기이자 서술이며, 토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라는 기록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도들의 메시지를 먼저 듣도록 초청하고 있다. 이는 신학자들에 의해 각색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도록 초청한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요더가 각색된 조직신학적 관점 혹은 고전적 기독론을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통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11) 앞의 책, 53.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잘 열어보지 않는 교부시대의 그리스도, 신조들에 드러난 그리스도, 종교개혁가들의 그리스도, 경건주의자들의 그리스도, 속죄론의 변천과정 및 각 이론의 특징들, 계시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역할, 조직신학의 주제가 드러내는 왕, 제사장,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면밀히 살피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데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3. 요더가 설명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은 제자도로 완성된다.

정통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 혹은 기능은 예언자, 제사장, 왕의 기능으로 정리되었다. 이 세 기능은 예수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고 시행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하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의 기본적인 차원은 기름부음을 받은 백성 곧 언약의 백성으로 표현되어 왔는데, 기름부음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예언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회적 조직을 갖추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은 기름부음을 통해 세워져야 했고,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리더로서 인준하는 절차였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주며 여러 종교의식, 예배의식,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구약에서 이 두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왕정이 시작되면서 기름부음의 직책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고, 왕으로서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야 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는 그 강조점이 조금씩 변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과 사건과 영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제사장, 예언자, 왕의 역할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에 의해 통합되었고 기능은 그리스도라는 직책

에 모두 함축되어 녹아들게 되었다. 히브리어 메시아나,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제사장,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설명한 책이다.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기존의 기독교 신학에서도 모두 주장하는 바이며, 이견이 없다.

요더의 관심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직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있다. 실제로 주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하여는 많은 설명을 할애하지만, 그 기능들이 제자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나아가 이 세 가지 직책 및 기능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12] 그러나 요더는 그리스도의 예언자, 제사장, 왕의 통치권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일과 항상 관련을 맺도록 되어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하며, 함께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왕으로 모든 것을 실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죄, 계시의 사역을 각각 왕권, 제사장, 예언자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예수의 사역은 통치자의 선언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는 제사장적인 사역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엄청난 사역이기도 하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제사장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이양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언자적 소명은 여전히 교회의 소명이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12) 앞의 책, 236

들로 모인 공동체의 소명이기도 하다. 요더에게 제자도의 의미는 곧 이러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왕이신 그리스도

항상 그렇듯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세상을 점령의 대상, 정복의 대상으로 삼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권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새로운 종류의 왕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폭력적인 왕,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이 세상의 정치를 무력으로 정복하여 무력에 기초한 모습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정반대의 길을 요청한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왕권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정의하였다.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인다. 예수를 따르면서 특정 자리를 꿈꾸었던 제자들조차도 경악할만한 새로운 형태/개념의 왕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다.

누가복음 4장의 메시아 선언은 이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 이러한 메시아는 기존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복음서가 외치듯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13] 이는 왕의 선언으로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희년의 법은 선포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초청되었다. 매일 바라보는 돈, 성, 결혼, 갈등, 권력은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재편되어야 했다.[14] 새로운 사회, 정치적 질서와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선언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요더는 이를 세 가지

13) 마가복음 1:15
14) *Preface to Theology*. 246

로 정리하였다.

첫째,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선언은 마태복음 19장이 기록하고 있듯이 새로운 사회 질서의 도래라는 의미가 있다.[15] 예수는 사회에 편만해 있던 문제들을 처음의 것으로 돌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한 원형으로 사회질서를 회복시켰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즉 그가 새로이 세운 나라에서는 그의 왕권 아래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창조질서의 원 그림이 회복되어야 했다.

둘째,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행된다는 의미가 있다.[16]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은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었다. 새로운 나라 곧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일들이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선언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다. 이는 기도, 염려와 걱정, 내일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재편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고백은 이론이 아니라 실재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선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순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를 선사해 준다.[17] 불순종과 불완전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100%순종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목표를 낮게 잡을 필요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족해하고 흡족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부터 잘못되었다고 선언한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높은 위상으로 백성들을 초청한다.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는 급진적 메시지를

15) 앞의 책., 246
16) 앞의 책., 246
17) 앞의 책., 246

담고 있다.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도 모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왕의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정치적 혹은 종교적 구호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입술로만 하는 고백과 선포하고 지키지 않는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으로 이를 실현하셨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선언이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불완전하고 사악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재편되고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본질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혁명적인 복종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고통이든, 죽음이든 섬기러 오신 예수의 왕권을 받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2)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알아내기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왜 죄를 용서할 때,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을 텐데 십자가의 방식을 택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시대의 응답이 바로 속죄론(Atonement)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론은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라고 해야 옳다. 속죄론으로 정리된 내용은 크게 신의 진노를 달래는 화목제로서의 유화 (propitiation), 속죄(expiation), 보상(reparation), 처벌 (penalty)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구스타프 알렌Gustaf Aulen의 그리스도의 승리(Christus Victor)설, 속전 혹은 대속물Ransom인 예수

를 놓고 사탄과 행한 흥정, 죄인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자의 죽음, 아벨라드(Abelard)의 "도덕적 감화설," 캔터베리의 주교 안셀름(Anselm)의 "만족설", 아벨라드와 안셀름의 설명을 혼합한 롬바르드(Lombard)의 "혼합설," 그 외 신비적 속죄설(mystical)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이 있어왔다. 요더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역사적 속죄론들을 일일이 살핀 후, 아나뱁티스트의 설명과 최근의 심리학계의 입장을 설명한다.

아나뱁티스트들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면을 통합하여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즉 "하나님의 조명으로써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의 부활, 치유, 양자로 선택되어 아들이 됨, 희생의 피와 대속죄"를 총 망라하여 설명한다.[18] 폴 트루니에의 설명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의 실재를 받아들이셨다는 설명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남았다. 그리스도 이후에 인간의 존재는 이미 이러한 상황 앞에 놓여있으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실재다.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속죄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세상에 은혜, 용서, 용인, 수락의 의미를 던진다.[19] 이 용서의 메시지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3) 예언자이신 그리스도

예언자의 역할은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드러내는 데 있다. 원래 예언자라는 히브리어 용어 nabi는 보는 자seer라는 뜻

18) 앞의 책, 312
19) 앞의 책, 327

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살펴본 제사장이 예식을 주관하며 희생제를 드리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윤리를 선포하는 자이다. 하여 예언자는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드러내고,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하나님께 전달하는 대변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모세가 그랬듯이, 그리고 수 많은 참 예언자가 그랬듯이 예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든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예수의 예언자적 기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20]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한다.

예수의 계시는 이전의 자연 현상, 기적, 성경 말씀을 통한 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 자체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를 살아있는 말씀(Logos) 즉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설명하였고, 히브리서와 요한1서에서는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로 설명한다. 인간 예수는 문자에 갇혀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 역사로 관입한 하나님의 새로운 소통방법이자, 현현이며, 계시다.

요더는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계시로서의 성경, 신조, 성경에 대한 이해, 언어, 문화, 성서해석학, 청자와 화자, 객관성, 이성 등 기독교 역사 속의 계시의 점진성을 다루었다. 이러한 계시는 성경과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났고, 계시를 본 사람들은 회심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계시와 회심의 과정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적 발돋움, 비약 혹은 깨달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시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특별계시인 성경말씀이 어

20) 앞의 책, 332

떤 상황 속에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일이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일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국 방송을 하고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기록된 메시지만 잔뜩 보내놓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 한 가운데에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마치 정말로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언어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표정과 존재감으로 소통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21]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냈다. 자신의 성육신을 통해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결론

역사의 발전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신학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새로운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첫째이며, 현재 우리에게 전달된 그 가르침을 다시금 점검하기 위한 것 둘째이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이자, 지속적인 소통의 산물이다. 요더가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학을 개관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요더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강조점과 그리스도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삼위일체가 되었든, 전통이 되었든, 성육신이 되었든, 성서의 해석학이 되었든, 구원론이 되었든 요더의 관심사와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윤리학, 평화학, 제자도, 공동체, 교회론도 결국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

21) 앞의 책, 355

그러기에 우리는 요더의 모든 글이 그리스도론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기독론, 곧 그리스도론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는 물론 어떻게 그를 따를 것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예수의 정치학』에서 요더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를 모든 신학의 중심에 놓은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삼아야 할 인물로 예수를 놓은 이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 값비싼 헌신을 치르면서라도 제자로 살아야 한다며 예수를 제자도의 중심에 놓은 이유도, 그리고 그러한 값비싼 헌신이 있어야만 죽음을 떠나 새로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파한 이유도 모두 다 같은 맥락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공동의 성서해석

1. 아나뱁티스트 전통에서의 성서해석
2. 스스로 해석하는 성서
3. 그리스도 중심론과 두 개의 언약
4. 성령과 말씀
5. 공동의 성서해석
6. 순종의 해석학

스튜어트 머레이
(런던 아나뱁티스트센터)

이 연재는 스튜어트 머레이의 『아나뱁티스트 성서해석학』(대장간 역간)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므로 원서에 있는 각주는 생략하였습니다.(정리 배용하)

아나뱁티스트의 성서해석에서 교회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교회는 해석하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 공동의 성서해석

해석공동체

이것은 반교권주의와 평등주의를 더욱 자극했고, 16세기 주변환경인 승인된 지도자들에게로 가르치는 임무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여 작용한 것이었으며 당대의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었다. 이 공동체적 해석은 3가지에 반대하는 상징이었다. 1) 신령주의자들이 성서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 2)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서 개인의 해석 권리가

철저하게 축소된 가톨릭 모델에 대한 거부, 3) '오직성서'의 원리를 적용하는 종교개혁주의의 방식에 대한 거부가 그것이다.

어떤 종교개혁자들은 일단 해석에서 교회공동체에 부여된 역할을 지지했다. 그러나 후에 그 입장을 취소했다. 루터와 츠빙글리의 초기 글은 성서를 듣고 해석하는 지교회의 권위를 지지했기에 그 결과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권위의 권리가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그 입장을 버리고 세속적인 권위들을 우위에 놓았으므로 아나뱁티스트들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세속적인 통치자들이 성서의 해석에 대해 어떤 권한과 영향을 주는 것을 부정하게 되었다.

교회론에 대하여 이러한 불일치는 오직 아나뱁티스트들만이 성서해석에 교회적인 접근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헌신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성서에 복종하고 성령에 대해 예민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했다. 비록 종교개혁자들이 같은 원리를 수용하려고 했을지라도 헌신한 신자들의 교회보다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개혁한다는 점진적인 접근을 선택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해석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공동체성이 모자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나뱁티스트 지도자들은 그런 헌신한 신자들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움직였다.

공동체적 해석학의 실제

그 흔적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회중 모임의 설명과 아나뱁티스트 지도자들(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무게가 있기를 바라던 사람들)의 진술과 교회회의의 절차에 대한 결론에 남아있다. 물론 그 안에서의 다양성은 존재하였다. 공동체적 해석에 대한 헌신과 실행은 정도의 문제였다. 그러나 해석에서 교회의 분명한 역할은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16세기를 통하여 인정되었다

스위스 형제단의 한 소책자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모든 청중은 침묵하고 어떤 말도 어떤 예언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영적인 공동체로 그것을 간주할 수 있으며 고백할 것인가?" "혹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의하여, 말씀과 예언의 순서가 한 사람이 한 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역사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저자는 묻는다.

마펙은 "그런 권위는 모든 진실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위탁되었다…모두가 사도들이 아니고, 모두가 선지자들이 아니고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교사가 아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런 은사들 어떤 것도 믿는 자들의 필요에 부족하지 않았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권을 높이 찬양하는지에 관계없이, 이 확증은 오늘날까지 진실한 어떤 신자에게도 금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회중이 해석하는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 결정적인 요소는 지도자의 역할이다. 회중의 해석은 지도자가 모임을 지배하기보다는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과 혼자만의 참여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도록 돕는 임무를 그들에게 자각해야 한다. 이런 임무는 성서가 읽히며, 모든 구성원의 헌신을 통해 성서가 이해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교회의 목사 역할과 상당히 달랐다. 예를 들어, 칼뱅은 자신이 받은 가르침의 임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성서를 해석하는 자격을 준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리더십은 은사 중 하나이고 그 기러는 공동체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리더가 공동체 위에 있지 않다. 리더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종이다. 존경받는 여러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은 분별하는 공동체에 순종했으며 그 기본원리를 충실히 지켰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반드시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했다. 교정에 대한 이러한 개방성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마펙의 해석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는 자도 성령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성령, 성서, 그리

고 교회 사이의 균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주목할 만하다.

메노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 글에 관하여 더 간단한 성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명확한 기초, 더 단순한 진리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도우라. 나는 이 문제에 관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것이며, 당신의 견해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했다.

즉각적인 설교에 대한 반응은 아나뱁티스트 안에서 관례화되어 정착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공부가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확신이 나왔음을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 자매들이 포함되어 여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는 것도 많은 사례가 증거한다.

초기 아나뱁티즘 가운데 떠오른 신앙고백들은 일반적으로 한 지도자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룹의 만장일치 결과이며, 더불어 교정과 발전에 열려 있었다. 이런 고백들은 다양한 아나뱁티스트의 운동 전체에 전체적으로 수용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동의한 교리적 상태도 아니었다. 특별히 메노는 아나뱁티스트 사이에서 어떤 신조나 고백이 믿음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데 특별한 관심을 뒀다. 신앙고백은 단순히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만장일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아주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최종 진술로 여기지 않았다.

슐라이트하임이라는 신앙고백이 있지만, 이를 교리화해서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는다. 비록 자틀러가 영향력있는 지도자였지만, 어떤 지도자들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 어떤 지도자나 신학자도 한 명의 지도자가 지교회를 다스리도록 허락된 것처럼 회의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해석공동체의 뿌리

후터가 체포되기 전에 간단하게 쓴 그의 편지에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에 집중하라며, 지도자들이 잡혀갈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마음의 창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물을 끄집어 낼 수 있게 하라"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해석공동체의 뿌리 중 하나이다. 것이다. 비록 후터가 지도자들이 없을 때에 "주님이 불기둥으로 앞서 나가실 것이다. 그 불기둥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그들 속에서 일하며, 그들을 진리와 든든한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의 빛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지만, 이런 세심한 주의는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요구보다는 공동체적 참여를 더 요구하는 말이다. 일단 지도자들이 떠나면, 교회구성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 불기둥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그들 속에서 일하며, 그들을 진리와 든든한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의 빛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지만, 이런 세심한 주의는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요구보다는 공동체적 참여를 더 요구하는 말이다. 일단 지도자들이 떠나면, 교회구성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었다.

아나뱁티스트 모임에는 강대상이 없었다. 교회의 건축은 회중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수의 참여는 특히 교회론이 다수의 참여를 지지하는 관점일 때, 강대상이 없는 환경에서 훨씬 더 가능해 지는 것이다. 실제로 널리 퍼진 이와 같은 확신은 공동체적 해석을 배제하고 상상하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쯔빙글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성서 해석의 시작에 기여한 인물이지만, 결국 성서에 대한 정치적 권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학문을 점점 더 강조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의 급진적 제자들과 다른 길을 가게된다. 쯔빙글리는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요,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요"라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해석하는데, 이전에 이 본문으로 콘스탄스 주교에 반대하여 해석학적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지역교회의 권리를 지지하려고 주장했다. 3년 뒤에, 아나뱁티스트에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그는 해석학적 공동체

를 몇 번 언급하면서, 훈련된 해석자들에게만 해석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말을 바꾼다.

해석공동체를 떠받쳐 주는 세가지 확신은 1)모든 신자의 신학자화, 2)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교회 중심성과 연속성, 3) 함께 하는 교회가 성령사역의 주요 장소라는 신앙이었다. 물론 이런 주장과 글들은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종교개혁자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배척했던 공동체적 삶의 비전을 아나뱁티스트들이 이런 원리들을 따라 해석하는 공동체로 발전시켰다.

스튜어트 머레이의 평가

우려대로 아나뱁티스트는 공동체의 성서해석 때문에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불일치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성서에 대한 특정 이해를 강요하는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혼란을 겪었다. 특히 말씀 해석의 문제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목소리에 대한 것일때 특히 어려움을 호소했다. 로스만은 해석이 그리스도인을 적합한 삶의 행동으로 이끈다면 그 해석은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뮌스터 일화에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의 행동은 이 윤리적 여과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동시대 사람 일부가 이 분열을 아나뱁티스트가 틀렸다는 증거로 사용하였지만, 이점은 이미 누군가 내려준 결론을 가지고 자신을 지지할 증거를 찾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아나뱁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실수나 불일치, 조잡한 해석의 문제점을 국가나 이교적 관습과 연합한 교회의 모습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아나뱁티스트의 공동체해석의 한계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헌신한 신학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후브마이어는 전문가들을 환영했지만, 회중과 시골의 교회에서 학자들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계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또 다른 한계는 과거 교회에 대한 배제이다. 과

거의 합의를 무시하고 현재의 합의에 촛점을 맞추어서 칼뱅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타락한 교회라는 전제는 이전 교회의 지혜를 전혀 끌어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아나뱁티스트와 비슷한 해석을 했는지를 알 기회를 앗아갔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도 정부, 정의, 사회와의 관계에서 더 넓은 공동체를 다루는 성서를 잘못 이해하게 한다. 대안적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본문, 특히 신약에 집중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의 범위를 넓히려는 접근법을 선택했지만, 그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 아나뱁티스트들은 제한된 범위를 선택했지만, 그 내용을 왜곡되지 않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해석하는 공동체에게는 교회가 그들의 성서해석과 이행의 장소이자 초점이었다.

공동체적 해석의 두 가지 강점은 1) 교회 회원 모두가 성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이바지 하는 것, 2) 교정에 대한 열린 마음이다. 해석학적 공동체가 단지 어떤 아나뱁티스트 그룹에 의해 이행되었을 것이며, 제한된 교회 안에서 초기에만 생존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아마도 아나뱁티스트 해석학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치 있는 양상이었다.

2. 순종의 해석

해석과 적용

아나뱁티스트는 성서해석과 적용이 분리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들의 신학과 신학자에 대한 의심은 교육과 지적인 접근이 해석을 왜곡하는 경향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성서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는 점과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에 기인한다. 신학적 우수성이 신실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의미가 확실한 본문에서도 성서의 더 급진적인 도전으로부터 멀리 도망

가 버리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실망한 아나뱁티스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글을 읽어야 한다. " 성서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순종해야 한다"라고 메노가 말했다. 그 밖에도, 그는 성서해석의 주제를 토론했는데 이 논평은 극단적인 성서 문자주의의 예가 아니라 성서에 대한 순종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논쟁적인 진술이었다. 아나뱁티스트들은 공동체적 해석이 실천되면서 해석 자체보다는 적용에 강조를 두었다. 아나뱁티스트들의 설교는 윤리적 주제와 성서의 적용을 교리보다 더 강조했다.

자틀러는 해석의 명확한 원리 중 첫째로 성서의 명백한 명령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라고 했다. 쯔빙글리와 아나뱁티스트들이 분리된 것이 바로 이러한 적용에서의 다름 때문이었다. 이점은 존 클래스가 그의 아이들에게 다음과 양육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이 말한 것을 믿지말라, 신약성서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믿지 마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순종해라." 그는 자녀가 성서에 순종하는 것을 다른 영향에 의해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해석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원했다.

해석의 필수요건으로서의 순종

한스 뎅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강력하게 표현했다. 그리스도그리고 성서의 이해에 대한 진정한 지식의 근본은 제자도의 삶이다. 또한" 예수를 먼저 알지 않고는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다"는 해석학의 또 다른 필수요건을 강조했다. 즉,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한스 키스쿠퍼는 1550년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성서를 찾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성서를 해석하는 능력은 온전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영적인 선물이다.

국가교회의 교사들의 도덕적 결함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신뢰를 둔 국가

교회의 옳지 않은 관점과 많은 관심이 해석자들의 삶의 질에 있었던 아나뱁티스트들의 관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당연히 국가교회의 설교자들을 제외한, 교사들의 이런 도덕적 자질에 대한 한 측면은 성서를 해석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속적인 힘과 기득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세속적인 권위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태도에 도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성서를 해석할 자유가 없다. 이들은 성서의 날카로운 도전에 반응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람들이다.

생활의 재정문제와 안전을 지켜주는 안락한 삶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후트는 "세속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서기관들은 주님의 심판을 알 수 없다… 나는 이윤을 좇고, 쾌락을 추구하고, 야망이 있고, 위선적인 돈을 위해 설교하는 모든 사람에 맞서서 열정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의를 주며 그들을 피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당신들의 윤택한 삶을 원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배를 위할 뿐이다."라며 유급 성직자들이 진리를 설교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많은 이들이 국가교회의 설교자들이 돈을 위해 설교했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했다.

진리의 적은 무지가 아니라 거짓임을 아나뱁티스트들은 잘 분별했다. 무지를 위험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지식을 더 염려했다. 오직 진정한 제자도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덜 준비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무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학자들로부터 배우는 거짓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다. 만약 아나뱁티스트들이 제자도의 삶과 해석학을 위한 필수요건인 순종에 헌신한다면 그들은 연구된 구체적인 본문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며, 이것은 효과적인 해석의 가장 중요한 자세로 간주하였다. 교정에 대한 열린 마음과 성서로부터 배운 것에 순종하려는 자세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 초기 아나뱁티스트는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요약하면서 같이 생각해볼 문제

* 과연 우리는 지도자와 교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그들만이 해석의 정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을 수 있을까? 리더나 교사만의 문제인가? 회중의 문제인가?

* 공동체에서 자신이 한 말을 교정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방성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며 형제자매를 신뢰하는 자세이다. 이 점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아나뱁티스트에게 신학자나 전공자 혹은 전문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누구보다 더 앞선다는 말인가? 더 말씀에 민감한 공동체의 지체가 있을 뿐이다.

* 아나뱁티스트들의 스승이며 동지였던 쯔빙글리가 변절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의 나중 지도는 다르게 그려졌을까? 역사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다만 지키지 못할 것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친 것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가르침을 뒤집는 그러한 일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뿐이다.

* 저자는 신학자의 부재와 학문적 자료 축적의 부재와 더불어 콘스탄틴 이후로 타락한 교회라는 전제로 교회의 오랜 전통을 배제한 점을 아나뱁티스트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오백년 넘게 신앙을 유지하고 삶으로 전해져오게 된 것이 철저한 단절 때문은 아닐까? 요즘 들어 아나뱁티스트 내부에서도 과거의 평화와 공동체, 제자도에 대한 실천성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점은 아나뱁티스트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닐까?

* 아나뱁티스트들이 누군가의 삶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면 성서적 적용(순종)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점은 유익하다.

진짜 은혜

최태선 형제
55년생 목사

이 글은 『은혜의 빛』(50가지 창조적 영성과 은혜의 이야기)의 역자 서문입니다.

젊은 부부가 귀농을 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작물은 참깨였습니다. 신통치는 않았지만 마침내 참깨를 수확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참깨로 100% 진짜 참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진짜 참기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부는 그 참기름이 그렇게 계속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얼마 후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라는 걸 믿지만 그 참기름 맛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짜 참기름 맛에 길들여진 입맛 탓에 정작 진짜 참기름이 맛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깨 농사를 직접 지어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 팔겠다는 부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착향제와 조미료를 가미한 가짜 참기름의 강력한 맛은 본래 참기름의 맛을 잠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가짜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가시적이고 강력한 것을 원하기 마련인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은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종교적 카타르시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체험이라는 단어로 각색하여 그런 체험이 없거나 그런 체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 불같은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신에 넘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크다고 주장하는 사납고 거칠어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그들의 강압적인 주장에 설득되어 합류함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정말 대책 없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김 정주라는 분이 쓴 "교회에선 '주여, 주여' , 교회 문 밖에선 '죽여, 죽여'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찬송도 불이 꼭 들어간 찬송이어야 하고, 말씀도 불같은 말씀이어야 하고, 기도도 불이 임하는 기도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부흥회의 열매는 불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했다. 그렇게 불같은 부흥회가 잘 마쳐지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는 불의 종이라는 칭호가 하사된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불의 종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 그런데 신기한 현상을 보았다. 이러한 부흥회의 불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겉은 엄청나게 뜨거워진 것 같고 당장 오대양 육대주라도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달려갈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데, 교회 주차장에서는 겉이 노릇노릇 익은 얼굴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다투기 시작한다. 주차 안내를 하는 나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열불을 낸다. 여전히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이간질하고 미워한다. 이간질하는 모습을 보는 나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세상이 아닌 가정에 돌아가서 불을 쏟는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죽여, 죽여" 한다.

강력한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중독되어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특별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짜 은혜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열매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분들은 진짜 은혜의 맛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진짜 참기름이 안 팔렸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은혜가 외면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요1:12)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줍니다.

>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14)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바라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울고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론 실망을 시키거나 담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여 믿음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무엇보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원래 의도된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거룩하고, 평화롭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있는 그대로 은혜롭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고 또 받았다는 은혜라는 이 말은 추상적이어서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어로 '카리스' 인 은혜는 감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란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감사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우러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러난다는 말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은밀합니다. 때론 강력한 쓰나미와 같이 밀려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잔잔한 파문으로 마음속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눅1:38)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분에게 돌려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눅18:13)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해(苦海)같은 인생이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못난 자신이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바로 그런 깨달음의 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에 항복한 사람들의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번역하며 때때로 그들이 느꼈던 은혜가 제게도 전달되어 혼자서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제 삶 속의 은혜가 오버랩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제게도 은혜를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글 가운데 한 저자는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인생을 은혜의 "수증기"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 은혜를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는 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뱁티스트 기도묵상집 『매순간 주님과 함께』

이 글은 절기에 따른 아나뱁티스트 기도묵상집 『매순간 주님과 함께』의 내용설명과 공동체와 개인 혹은 그룹에서의 사용을 안내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기도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과연 또 다른 기도 책이 필요할까요?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기도 책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메노나이트 목회자, 교회 리더, 영성 리더, 학자 그리고 많은 신자가 기도의 여러 형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출처의 기도 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주목받았던 기도 방법을 매일 사용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급진적 개혁이라는 전통의 장점을 반영하는 자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리고자 원하는 많은 메노나이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에서 성령강림절까지 교회력을 따라 기도 책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력을 따라 구성된 이 책의 기도문들은 아직 초본 형태이므로 도움되는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책을 읽고 반응해 주신 독자들의 의견은 매우 큰 힘이 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바라건대, 이 기도 책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이러한 순간들이 끊임없는 찬양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성경적 근거 찾기

시편은 아침과 저녁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신자들이 드리

는 기도의 내용을 그 날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 계속 반복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짤막한 기록은 단순히 아침과 저녁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편 작가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시 113.3)는 말씀으로 영원히 기도하겠다는 열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추천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요청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요점은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을 좇는 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눅 18.1)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말씀의 조언은 아주 분명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신앙인이 일하고 먹고 자는 것도 마다하고 말 그대로 기도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였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잘못과 왜곡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는 칭찬할 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특별한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돈과 여러 자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물질을 유념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침과 저녁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모든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각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훈련된 기도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이들을 기도로 도움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맺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도하기를 멈추기도하고, 바쁘다는 이유가 시대의 영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실제로 기도할 시간조차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규칙적인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 방법을 배운 많은 이들이 "이 전까지는 저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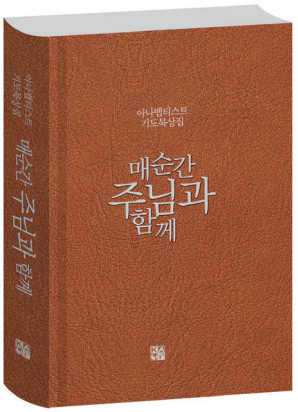
많은 기도 책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필요로 한다' 는 아나뱁티스트의 신념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인 스스로 자유롭게 기도하거나, 혼자 자신만의 영감을 따라 마음대로 혹은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멋진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기도에 대한 편협한 관점은 초기교회나 성서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신실한 삶이 그러한 것처럼, 기도생활에도 다른 신자들의 도움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는 기독교 역사에 걸쳐 등장하는 여러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기도와 공동 기도의 관계, 계획하지 않은 기도와 잘 준비된 기도,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기도는 가치가 있지만,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인도받는데 그 가치를 둡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 아침저녁 기도로 인해 신앙인들이 시편의 찬양 말씀, "해 뜨는 곳과 해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시편 65.8)는 진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신간소개

절기에 따른 아나뱁티스트 기도묵상집 매순간 주님과 함께

아더 폴 보어스 외 지음 / KAP 편집부 옮김 / KAP



초기 기독교에서 시작하여 여러 시대를 지나온 기도의 방식을 나누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절에서 오순절까지** 절기를 따라 묵상하도록 편집한 기도묵상집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소리를 듣게하며, 성경을 공동으로 묵상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묵상본문을 읽다보면 아나뱁티스트의 독특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예수의 목소리가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드립니다.

〈 추천의 글 〉

매우 훌륭한 기도책입니다! 성경 본문과 찬송, 기도문, 그리고 특정한 기도의 패턴을 확립하기 위한 편집자들의 선택이 매우 탁월합니다. 사용된 언어도 범세계적이어서 독자들이 이미 앞서 간 그리스도인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도문이 매우 널리 쓰여지고 잘 사용되도록 기도합니다. _ **마르바 던** (Marva J. Dawn), 영성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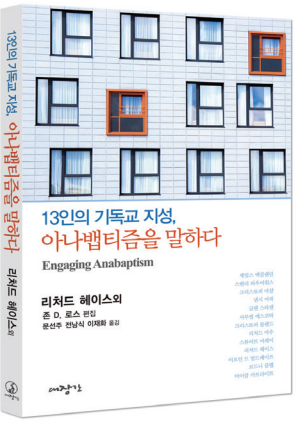
이 책은 다양한 전통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_ **마틴 달리**, 미시간 주 Three Rivers에 있는 성 그레고리 사원 수사

13인의 기독교 지성, 아나뱁티즘을 말하다

리처드 헤이스외 지음 / 문선주 전남식 이재화 옮김 / 대장간

다른 전통의 기독교 지성이 말하는 아나뱁티즘에 대한 오해와 이해



아나뱁티스트 전통은 "개혁의 기형"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었지만, 주요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에게서 또 다른 차원의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새로운 관점들을 들려준다. 13인의 개신교와 가톨릭 학자들이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전통이 자신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 한다.

재미있는 자서전적 스타일로 쓰여진 글들은 칭찬과 신랄할 비판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으며, 에큐메니칼 대화의 모델로서 리처드 헤이스, 리처드 마우, 낸시 머피, 사무엘 에스코바, 스탠리 하우어워스, 제임스 맥클렌던 등의 글이 실려있다. 〈편집자 존 D. 로스의 서문 중에서〉

〈 추천의 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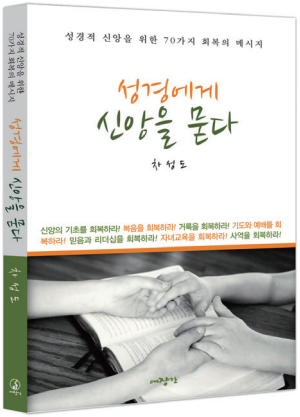
우리는 이 훌륭한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신학적 배경에서 온 동료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통하여 아나뱁티스트운동을 이해하는 풍성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저자들의 신앙과 솔직함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 이 글들은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진영에도 심오한 자극과 도전을 주고 있다. __**마이런 옥스버거**, 이스턴 메노나이트 신학교 총장

흥미롭고 영감넘치는 이 책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라는 성가대 속에서 침묵했던 아나뱁티즘이 다시 자신의 파트에서 노래를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__**알렌 크라이더**, 『회심의 변질』의 저자

성경에게 신앙을 묻다

차성도 지음 / 대장간



성경적 신앙을 위한 70가지 회복의 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의식하며, 어디에 투자하며, 무엇을 섬기며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 추천의 글 〉

이 책은 그냥 나온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질화된 영성의 깊이에서 흘러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전공인 물리학을 뛰어넘어 창조과학 사역, 성경적 교회의 회복, 홈스쿨과 기독교 대안교육, 성경적 평신도 사역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온 삶의 결정체입니다.

– **황성주박사** (국제 사랑의 봉사단 국제대표, 꿈의 학교 이사장, 이롬 회장)

이 책에 실린 차 교수의 주옥같은 글들은 그저 책상머리에서 쓰여 진 글들이 아니라, 그가 학창시절부터 늘 마음에 품어왔던 교회 갱신과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진 메시지들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막중한 주제를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동시에 삶속에서 실천해온 크리스천 교수의 결론이자 지혜가 담겨있는 글들입니다

– **장동수목사** (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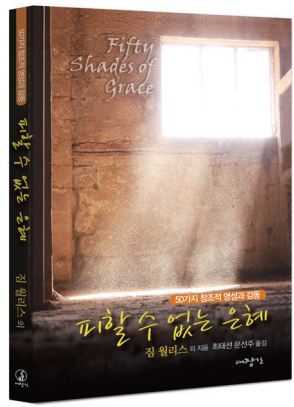
차성도 교수는 개혁가라기보다는 혁명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열정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과 교회를 찾아가는 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사도행전의 교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틀에 갇힌 제도와 전통에 맞서 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 초대교회들이 살아 왔던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이준행목사** (대공원교회 담임)

피할 수 없는 은혜 50가지 창조적 영감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짐 월리스 외 / 최태선 문선주 옮김 / 대장간

이 책은 폭력이 난무하고 용서가 없는 세상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자비와 소망으로 어떻게 커다란 비극을 이겨 내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바라본다면 은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은혜는 우리를 웃거나 울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담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거나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다.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잠시 동안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된다. 우리는 세상이 원래 의도된 대로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거룩하게. 있는 그대로, 너그럽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역자 서문 중에서〉

은혜의 역설은 그것이 한 가지 색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은사로 놀라움 가운데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오기도 하고 기쁨의 순간 우리의 삶 안으로 펄럭이며 오기도 한다. 때론 은혜의 선물은 준비된 습관의 결과물로 때를 따라 주어지는 열매이기도 하고, 치유와 화해의 과정 안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은혜란 언제나 값싸고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은혜가 올 때는 항상 우리 삶의 단조로이 갈라진 틈과 메마른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방문하는 희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 **도널드 크레이빌** 서문 중에서

〈 추천의 글 〉

이 책은 인간의 가장 큰 필요와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렇게 영감가득한 이야기들은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약할 때 힘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한다. – **데니스 홀링거**, 고든 콘웰신학교 학장

KAF(www.wkaf.net)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교회 www.sbrookchurch.org (쉘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gracepeace.org(은혜와평화교회) ■ www.facebook.com(꿈이있는교회)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단체 www.kac.or.kr(KAC) ■ www.kapbooks.com(KAP)

www.narpi.net(NARPI동북아평화훈련원) ■ 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www.daejanggan.org(도서출판 대장간) ■ www.wcfgw.nayana.kr(개척자들)

www.Reconciliasian.com(리콘실리아시안)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개척자들 – 비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68801-04-014046 (사)개척자들

– 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93401-04-124532 (사)개척자들

ReconciliAsian(디아스포라 화해자들)

– 비소득공제용 : 씨티뱅크 892-01467-259-01 허현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타뱁티스트센터

KOPI 국민은행 992801-01-260930 박윤서(한국평화교육훈련원)

KAF 재정 사용 내역 (2015. 7. 1~2015. 9 .31)

이월 −664,960

수입 1,503,000

60,000(예수촌교회), 90,000(쥬빌리교회), 90,000(평화누림교회)
200,000(주님은 나의목자교회), 315,000(캐다나셜부룩교회), 20,000(엄정희)
(9월 모임 회비 외:총 728,000(참가비 외 특별회비(문선주, 하늘가족교회,
주님은나의목자교회, 평화누림교회))

지출 1,547,000

500,000(김경중형제 환송), 280,000(9월모임 식사),
720,000(10호 제작) 47,000(저널 발송비)

잔액 −708,960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선교사업에 사용합니다.
재정사용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형제에게 물어 주세요.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